朝鮮日報
夕刊 十三日(金)
本紙朝夕刊十二面

上海紡績罷業은 對日罷業으로 轉化
中國側紡績罷業은全部終熄
背後에서黨部活動?

【上海十二日發同盟】上海의 紡績罷業은 只今對日罷業으로되여 形勢漸次 惡化하랴고하고잇다 即 中國側紡績의 罷業은 全部終熄하엿스나 日本人紡績의 罷業은 益益擴大하야 十二日午前四時에 至하야는 公大紗廠(鐘紡)第一廠에 飛火하야 全工場은 完全히停業하며 그後의 形勢는 益益險惡化하야 一絛公大紗廠第一廠도 只今 危險視되고잇다 職工側은 女工으로하야금 交涉의衝에 當케하고 男工은 背後로부터 이를操縱하야 一絛亂치안코 整然한結束下에 行動하야 會社側은 그 氣味까지 感知할수업스리만치 秘密統制를 지키고잇다 罷業의背後에는 極히有力한 指導者가存在한것이 確實하며 또 最近情勢로부터 抗日統一戰線結成에匍匐하는 黨部及救國會의 魔手가 빼치고잇는것으로 信憑된다

波及防止를要求

【靑島十一日發同盟】上海에서버러진 紡績罷業이 當地紡績에波及함을 阻止하기爲하야 谷萩陸軍駐在武官은 十一日午後市政府에 市長沈鴻烈氏를 訪問하고右罷業波及防止對策考究를 要求하엿다 이에對하야 沈市長은自信잇는 態度로 「靑島에는 絶對로 波及시키지안토록 嚴重取締한다」는 言質을確約하엿다

一千女學生參集 抗日示威敢行
紡績罷業工業慰安名目下에
結局警官隊와衝突

【上海十二日發同盟】十二日午後五時頃 上海共同租界靜安寺路의 女子基督敎靑年會에 約一千名의 女學生이 參集 抗日救國의 氣勢를올린後 目下罷業中의 日本人紡績工場職工慰安의 名目下에데모를行하려다가 工部局警官隊때문에 阻止된 事件이잇다 또三時項에 三千의 職工이 女工을先頭로 市政府에 請願示威進行을 하려하다가 工部局公安局員의 阻止로因하야 小衝突이난後 多數의檢束者를 내엿다 同樣事件이 다시反覆되어 紡績罷業은 經濟鬪爭으로부터 抗日政治鬪爭에 轉化하려는것으로 그推移는 매우 憂慮되게되엿다

閻傅內訌表面化

【北平十二日發同盟】蔣介石氏는 綏遠主席傅作義氏로부터 援軍增派를 電請하여기때문에 閻錫山氏에對하야 山西軍의 增援을電命하엿는데 閻錫山氏는 大部隊의 綏遠移動은 山西省內의兵力을稀薄케한다는 理由로 겨우大同附近에 駐屯한 小部隊를移動하엿슬뿐으로 表面을 糊塗하고잇다

右는 閻、傅兩氏內訌의表面化로 閻氏는 傅氏最近의蔣介石氏接近을 不快해하고 오히려傅의失脚을希望하고 自己腹心의 繼承綏氏로 하야금此에代身코자各種策動하고잇는狀態로 綏遠의 形勢逼迫한此際此兩巨頭의內紛은 同方面의時局에至大한 影響을與하는것이라한다

宋哲元氏歸來談

【北平十一日發同盟】十一日 天津으로부터 北平에歸來한 宋哲元氏는 十二日 中國記者에게 大要左와如히 談話를發表하엿다

一、天津에서田代駐屯軍司令官과 會見하엿는데 兩者의感情은 益益良好하다 北中經濟開發에對하여는 絶對平等互惠原則에섯것이다

一、綏遠方面의 情勢에 對하야 各種說이 傳하고잇스나 不遠한將來에 重大한紛爭이 發生치는안흘것이다

一、今回 余는 政務多忙으로 河北省政府主席을 辭任하고 馮治安氏가 代理로 任命되엿다 馮氏와가튼이가 가장適任이라思한다

豫算編成의癌 國防費增額問題
基準豫算을加하면十五億超過
增額은結局八億圓?

【東京電話同盟】明年度 各省豫算에 對한 大藏省主計局의 査定은 陸海軍、大藏 三省豫算을 除하고는 畢하엿스므로 主計局은 各省에 對하야 査定案을 內示하야 事務的折衝을 進行하고잇다 그리고 十三日에는 大藏省豫算을 十四日에는 陸海軍豫算을 各各 省議에 附하야 三省에 査定案을 內示하기로 되엿다 따러서 大藏省은 十日頃부터 各省復活要求에 基하야 計數整理를 行하고 歲入豫算의 最終豫定을 決定한後 二十日或은 二十四日의 閣議에 此를 附議할 方針이다 陸海軍以外의 各省豫算은 事務折衝에 依하야 相當한 程度의 解決을 어덧스나 陸海軍豫算에 關하여는 新規要求뿐으로도 合計 八億圓가까히되여 基準豫算을 加算하면 要求總額은 十五億圓을 超過한 膨大한 金額에及한것임으로 主計局은 國防의情勢에 鑑하야 極히寬大한 査定方針으로써 多額의 承認을할것이나 아직歲入關係及軍需國債其他一般經費와의調和上 陸海軍이 滿足할金額에到達하기에는 困難하며 事務的折衝만으로는 到底히 解決하기至難하다고 觀測하고잇다 卽大藏省이 今日까지에 豫定한 公債以外의 財源은 增稅據草價引上에 依한 增收、關稅收入、特別會計繰入、自然增收、普通歲入一切를 包含하야 겨우 二十億圓程度에不過함으로 歲出總額을二十八億圓程度에 끄치게할에는 十八億圓의 標準豫算에다가 十四億圓에 涉하는 新規要求를 十億圓程度에 承認하거로하고그財源으로 分配시킬수밧게 업서 陸海軍의 新規要求에 對하야 겨우五、六億圓을 承認할結果로되여 標準豫算을 加算한 國防豫算總額十二、三億圓으로서는 到底히 要求額十五億을 超過하는 陸海軍豫算을 解決할수업스므로 結局豫算閣議前後에서 高度의政治的折衝을行하야 그사이에서 廣田首相의 最後的裁斷을 나릴밧게업다고 推測된다 結局國防費의 增額이不可能이되면 陸海軍이모다 八億圓(今年度보다 一億圓增額의 公債發行豫定)을增額하는外에 別道理가 업스므로 이程度에 明年度豫算決定의 열쇠가 쥐여저잇는것이라推測된다

繰入金問題에對한 遞信省의態度

【東京電話同盟】豫算閣議가 切迫함에 이르러 遞信事業特別會計繰入金의 一般會計繰入에 對하야 大藏省과 遞信省이 折衝하게되엿는데 遞信省에서는 昨年度遞信特別會計豫算編成에 對하야 郵便料金引上에依한 一千五百萬圓의 增收를 豫定하는外 遞信從業員의 待遇改善及 遞信事業의 서비스改善等의 諸問題가 錯綜하고잇스므로 遞信省의 決心은 一般會計의 繰入은 五百萬圓을 最大限으로하고 그以上繰入은 斷乎認定치안흘方針이다 萬若大藏省이 그以上의繰入을 要求할境遇에는 恒久的財源確保의 事業計畫을세워 七個年總額五億圓의 事業公債의 發行을認定할것을 大藏省에 要求하고 그것이承認되면 若干의繰入增加에는 應할것이라推測된다

話題論說 赤十字運動

國際赤十字委員會에서는 마츰내 西班牙內亂의 非人道的인데 鑑하야 政府와叛軍에게戰鬪의人道化를 要求하얏다 오늘은 赤十字社에 對하야 잠깐 이야기해보기로하자

◇

赤十字의 理想은 엇커대 赤十字記章下에서 種族上 政治上또는 宗敎上의 모든偏見을 버리고 人類의 苦痛을 輕減 又는 除去하려는데잇다 即戰時에잇서서는 傷病兵救護 平時에잇서서는 一般救護事業과 疾病豫防事業을 하려는人類愛의 國際協同事業이 그目的이다 좀더 具體的으로 說明하기爲하야 그由來를차저보면 「크리미아」戰爭(一八五四ー一八五六)때에 저有名한英國婦人 「나이팅겔」女史가 이事業을 唱導하고 直接 先頭에서서 敵我의區別이업시 英佛兵의傷兵救護에 힘썻는데 그犧牲을차줄수잇섯다 그後一八五九年伊太利「솔페리노」戰爭에서 一日에傷病兵四萬人의慘況을본 瑞西人 앙리·듀난氏는 一八六二年 「솔페리노의記念」이라는 著書로써 이人道主義的活動을 國際化할것을 主張하고 또猛烈히 活動하얏다 그結果 同委員會를 組織하고 歐洲各國에는 그趣志에따르는 團體를 組織하는데 成功하얏다 各國의赤十字社는 續續 設立되야 그後一八六四年에는 全世界의 赤十字社를 統一하는 國際條約이 締結되야 各國赤十字社는 [illegible] 戰時에잇서서 軍隊衛生隊의中立을認定케하고 敵我의區別이업시 傷病兵의治療에 當할目的으로締結된 國際公法이다」 이條約은 그後數次 改正되야 今日에 일으럿는데 現在 全世界에서 各國赤十字社聯盟에 參加한國家는 實로 五十七個國이라는 多數에 達한다。

◇

그런데 日本에서는 明治十九年에 赤十字에 加入하얏고 加入한後 日本땅으로서는 처음으로 再昨年卽昭和九年十月(二十日부터二十九日까지)第十五回 赤十字國際會議를 東京에서 開催하게되얏다 秀熙露西亞가 赤十字聯盟에 加入한것도 이때거니와 東京會議에서는 當時 滿洲事變에 鑑하야 宣戰布告를하지아니하고 干戈를相交할때에도 赤十字 條約의適用하게되는것 少年赤十字 婦女子及非戰鬪人民에 對한 保護等等問題를 中心으로 討議總計二十五個條를 討議하얏다 이번 西國에對한要求中에 東京會議의 諸件을 高調한모양이나 赤十字運動이란 그로도 이赤十字는 世界平和에 對하야 積極的으로 活動하는것이아니고 다만消極的態度를 가질수밧게없다는것을 附言한다 即戰爭或은 戰爭類似의 事件發生을 防止하고 또戰爭의 非人道性을 高調하는 것이아니고 戰爭과非人道性을 一旦 認定해노코 그다음에 人類愛로써 일을處理하라는것이다 그럼으로 여기에는 一種의矛盾을 가지고잇는것이다 李甲燮

人民戰線軍아페는 猛攻擊도無効!
着着成効를收하는西政府軍
首都攻防戰에無異狀

【마드리드十二日發同盟】西班牙政府義勇軍은 叛軍의 猛攻擊을牽制코 이제反擊의 氣配를示하게되엿는데 十二日은 카사·데·칸포市의爭奪戰以外 戰況에의큰變化는업는데 戰線戰況을 綜合하면 如左하다

一、마드리드西端카사·데·칸포地方에서는 十一日來 猛烈한戰鬪가 展開되엿스나 政府軍機關銃隊는 叛軍의戰車隊에 頑强히抵抗 「赤色外人部隊」는大隊의來援을기다려十二日未明에 背後에다시 猛射를 加하엿다

一、南方톨레도橋附近에서는 政府軍機關銃隊는 橋畔에 分陣하고 叛軍接近을 防備 午後二時砲兵隊도 砲擊을 開始하엿다

一、北方시그엔사戰線에서는政府軍은叛軍의本據카사브랑카市에向하야 다시數키로前進하엿다

一、空中戰에서는 마드리드市의 郊外에서 政府軍의飛行機는叛軍의爆擊機三機를射落하엿다한다

【마드리드十二日發同盟】마드리드防衛司令部發表＝무어人部隊를 主力으로한 叛軍部隊는 十二日未明마드리드市內潛入을 企圖하엿스나 政府軍에게 擊退되여 政府軍은 톨레도街道를 비리아、베르데市에向하야 一粁半前進하엿다 北停車場이 叛亂部隊의 飛行機에게 爆擊破壞된事實은업다 또政府軍挺身部隊는 十二日 叛亂軍의戰線을突破한後 叛亂軍의背後에 迂回、守備薄弱한 헤타페飛行場以下附近數個村을 奪回하고 叛亂軍은若干多數를 鹵獲하엿다 叛亂軍은 마드리드攻略에 全力을總動員하고잇는데 人民戰線軍의堅壘에는猛攻擊도 效果업시 마드리드市는 一週間에亘한 攻擊에 견딜뿐아니라 健在함으로 戰況은 日復日有利하게 展開하야 勝利의曙光을 漸次增大하엿다

＝西政府軍反擊＝ ＝南郊數處奪還＝

【마드리드十二日發同盟】西班牙政府軍은 十一日未明以來依然反擊에 繼續하야 톨레도街道를 驀進한 入理後에까지 드듸여 南郊헤타페飛行場外數個所를 奪還하엿다 傳한다

逐叛軍을擊退하고라이플銃數千挺을鹵獲、叛軍二百名을 捕虜하엿다 政府軍은 카사·데·칸포市에 面한塔上에서 叛軍의

伊首相議會廢止코 政府首腦權限擴大
十八日黨評議會에 憲法改正提出乎

【羅馬十二日發同盟】伊太利政府는 十八日베네추아宮에서 파시스트黨評議會를 開催、政府의外交政策을 討議하는 同會議에서 챠노伯은 維也納會議의 經過를 報告하고 무首相은 如左히 憲法改正을 提出하리라고한다

一、議會全廢

一、政府首腦者의 權限擴大 現在政府首席

무소리니首相은 現在政府首相兼파시스트黨總裁를 兼하엿스므로 此際 首相을 分離하야 愛婿챠노伯에 讓하리라고傳한다

蘇、革命記念日에 外人多數逮捕
反幹部派連絡企圖로

【와르샤우十一日發同盟】莫斯科에서 外國人數名이 逮捕되엿다는 報道는 當地에서도 確認되엿다 即 獨逸人五名、墺地利人一名、瑞典人二名의 共產黨員外 一名인 소스네포스키氏만은 이미逮捕되엿다한다 이는 十一月七日의革命記念日을 期하야 莫斯科에 赴任한 [illegible] 一齊히 逮捕하엿는데 이들은 지노비에프一派의 處刑에 依하야 朴滅되엿든 反幹部派와 連絡復活을企圖하엿기때문이라한다

皇后陛下 女子學習院에行啓

【東京電話同盟】女子學習院에서는 昨秋 皇太后陛下 御台臨下에 開院五十周年 記念을 擧行하엿는데 十三日記念日에는 皇后陛下의 行啓를 仰하야 開院記念式典을 擧行하엿다 女子敎育에 深甚한 大御心을傾注하압신 皇后陛下께압서는 淸楚한 御洋裝으로 廣橋大夫를 陪乘하사 竹屋女官長以下를 隨從하시고 午前九時三十分 宮城御出門、同院에 行啓、便殿에서 高松宮妃殿下께 御對顔、午前十時全校生徒를 御覽하압신後 講堂에 臨御하사 「君が代」「金剛石」의 合唱中에 式을 終了하압시고 午後一時부터 活花、盆石其他手藝等 授業을 御覽하압신後 中期一年御在學中의 [illegible] 學生의 授業을 御覽하압시고 午後二時三十分 宮城에 還御하압시엿다

朝滿鐵道一元化는 一個愚論에不過
中樞院改革은그러케簡單치안타
南總督의時事談

南總督은 十三日 總督府에서 記者團과會見하고 左와如한 時事談을 하엿다

朝滿一如라고하야 朝鮮과滿洲의 鐵道一元化를 論議하는사람이잇지만 此는 一愚論에不過하다 何等必要가업슬뿐아니라 朝鮮鐵道經營問題는 方今 總督府의 意見을 參酌하야 折衝中이나 此는 重大한 政治問題로 簡單히 決定할것이아니니 左右間 充分히 硏究하여보고저한다

中樞院改革과 朝鮮評議會의 問題等을 主張하는者 多數이나 그러케 簡單한問題가아니고 又朝鮮으로서도 運營經理其他方面에 何等支障이업는때에 如斯한論議는 何等必要가업다

獨逸人檢擧로 獨蘇關係險惡化

【伯林十二日發同盟】獨逸人檢擧事件에關하야 獨逸政府는 蘇聯政府에 對하야 嚴重抗議를 提出하기로 決定한結果 獨蘇兩國間의 關係는 다시險惡을 豫想하게되엿다 왈소로부터의報道에 依하면 今回檢擧된者는 亡命獨逸人五名、英、瑞、人各一名으로 모다 트로츠키一派의 反革命運動에參加한 嫌疑에 基한것이라하나 적어도 獨逸人은 技術專門家로서가아니라 共產黨乃至나치스政權의 亡命者라는것은 確實하다 推測된다 따라서 莫斯科駐剳獨逸大使는 旅行地로부터 歸任한後 事件의 內容을調査한後 蘇聯外務人民委員部에照會하야 機宜의處置에 나갈것으로 豫想되는데 뉴른베르크黨大會에서 히틀러總統及 나치스首腦部가 볼쉐비즘 打倒의 旗幟를 闡明한 以來 獨蘇兩國關係는 急激히 緊張되여저서 蘇聯外務人民委員 리트비노프氏도 過般 反파쇼意見을 表明하엿스므로 今後의 發展如何로는 메트로포리탄·비카ー스社의 英國人技師逮捕事件으로 英蘇兩國關係가 惡化한 當時以上의 事態를 惹起할지도 모른다

獨政府嚴重抗議

【伯林十二日發同盟】獨逸政府는 蘇聯政府가 同國在留의 獨逸人을 檢擧하엿다는報를 接受한結果 十二日莫斯科駐剳獨逸大使쉬렌부르크伯에 對하야 嚴重抗議하도록 訓令하엿다

辭令

忠淸北道書記 李晩植
任郡守(七等) 命忠淸北道陰城郡在勤
忠淸北道屬 兼學務局屬 尹[illegible]
任郡守(八等) 命忠淸北道報恩郡在勤
(忠北報恩)郡守 崔在金
命忠淸北道堤川郡在勤
(忠北永同)郡守 李海用
命忠淸北道淸州郡在勤
(忠北淸州)同 [illegible]
命忠淸北道永同郡在勤
(忠北陰城)同 [illegible]
(忠北堤川)同 朴[illegible]
依願免本官(各通)

八面鋒

國際赤十字委員會에서 西班牙의 兩交戰團體에게 戰鬪의 人道化를要求。

◇ 戰爭을 承認하는以上 人道的戰爭과 非人道的戰爭을 무슨方法으로 區分할가。

◇ 人頭獸身은 埃及의名物이오 殺人成仁은 現代의特徵!。

◇ 赤十字 白十字 雙十字를아모리내어들러도 羊頭狗肉을팔음은 「이브」以來의運命!。

◇ 祖國보다도 人民보다도 아니人道보다도、主義를爲하야 싸우는것이 左右葛藤의始初。

◇ 主義도이저바리고 是非도덥허노코 權力을爲하야 다투는것이 今日西國의現狀。

◇ 그러나 小權을爲하야 大權을갈고 國內戰이 번지어서國際戰이된다면、人道여 그대는 어대로 가랴하느뇨。

人事·集會

▲野中齊之助氏(壽松普校長)火災慰問謝禮人事次來社
▲松本雅太郎氏(淑明女高普幹事)壽松校近火慰問謝禮人事次來社
▲金宗源氏(新義州實業家)今月十一日午前二時半新義州府初音町一四番地自宅에서逝去

本社參觀

▲高山公普生徒五十三人 前田麗男氏引率下에本社見學

便紙는 이러케쓰는법
落合文學士發表

他人과交際上、商業用上便紙가能通하다고남에게尊敬을밧고、萬事에훌륭하게出世할수잇다 反對로調理가업고、또充分히쓰지못하면、義理를일코、相對에게感情을주라든지하야、失敗를보는일이만타 今般東京市小石川區大塚町二十五番地 大東社書店에서發行한 落合文學士著「手紙百科大辭典」은누구에게나 所用되는貴重한冊으로 이冊만잇스면 훌륭한文章이될수잇고 他人에게代書를바들必要도업고 오히려代書를하여주게됨니다、

內容은交際文 商業文 暑中寒中 病者慰問文 年賀 祝賀 謝禮文 照會 催促 詫文 吊慰文 男女交際文就職請信 履歷書쓰는法其他人十事에 達하고알기쉽게 一一히實例를드러놋다

同書는 定價一圓五十錢을五百部限하야單一圓에前記大東社로藥書로 申込하면 代金은着本拂로 送本한다、

有望한 家庭工業에 軍手編物을奬勵

職業은家寶 어떠한職業이든지 職業을갖는만큼 心身이 좋은것은업다 副業的職業으로또 本業的執務로도 여기에依해서 一家生活의安定을圖計하야 安樂하게지날수잇는것은亦是職業이잇는고로 더우現今과가티不況時代에는 痛切히考慮할問題로 高低의差가잇는사람은누구나다각각慾望이잇서 生活上不安을一掃하기爲해 또는將來를爲해 或은手藝를爲해效果가잇는事業을어드려고希望하고더욱이職業을더어幸福을바라고前進한다

軍手製造業은、近年、現著히需要를擴張하야、日用必需品이라한强味에서 不安이업는事業으로써所謂職業을엇고저하는이는 모도就業함에이르러、至今에는文化向上과더부러 훌륭한發展途上에잇는고로將來有望한職業인가를迅速着眼한사람으로 副業에서事業으로、그리고 獨立工業의領域에達한사람이적지안타는것은勿論、一般的으로四季

軍手編物 이如何히 堅實하고 相當한 分함으로 그날부터 相當한收入을 어들수잇는 小資本으로 家內工業으로서最適業이다

軍手編物 이如何히 堅實하고 相當한 販賣方法에對하야 生産品을 如何히널리有利하게實現할수잇슬가하는單只緊要件은 生産品을 高價로販賣할것

斡旋과指導 이다弊所는새로히 經驗이 업는이들에게 本事業을 開始할이에게 製造方法의 指導敎授는 勿論 그製産品의 適當한販賣를 相當한 紹介하야 販賣하는 合理的措置를 講究하야 專門의永續的製造家를 養成하는計劃을 樹立하야 目下各地에 直屬製造家를 募集中이다 希望하는분은 한번 內容條件을 硏究하기를바라고 申込次第로 就業說明書를 無料送呈함

京城府黃金町五丁目八
朝日軍手京城營業所
電話本局二七五三番
大阪營業所 大阪市旭區野江町一丁目 電話堀川四二〇六番
東京營業所 東京市鄕元町東洋女子齒專前 電話小石川八三五番

小資本大成功

不景氣모르는確實無違한完全事業의內容案內書(一錢切手添付請求次第進呈)
京城蓬萊町一ノ一二八 榮信社工業所

恩給

長期低利立替新件及借換共檢有利한 報酬地方人士는多照會詳細答
京城授恩町一六〇 鄭商會

늑막염

꼭 낫는다! 肋膜炎에百發百中藥
藥價 輕症 十日分 六圓 重症 十日分 十圓
但地方은代金引換으로
京城府長沙町一四六
濟世堂藥房
振替京城二二一九九番

간질

癎疾治療公開 精神療法應用、神藥、米劑 일로도못낫는분은 最後的으로 決心으로問議하라
京城府新設町七十一 京城溫灸院

海陸物果物皮物鳥獸藥種 物賣買委託販賣業

東大門商會
閔丙星
(東大門外) 京城府鍾路四丁目一五八 電話光化門一六二二八

茂朱土種人蔘

人蔘界覇王 藥草中靈藥
茂朱郡茂朱面邑內里
茂朱蔘業組合
(請求次第價格表進呈)

年賦定期貸付 普通銀行業務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百四十番地ノ一
株式會社 朝鮮殖產銀行
頭取 有賀光豐
資本金參千萬圓
全鮮各地에支店出張所六十四個所及內地大阪에支店이잇슴
日本銀行代理店
日本勸業銀行代理店
朝鮮郵便貯金銀行代理店

セーラー万年筆

セーラー万年筆 兩面書 어떤書體에도조흠니다 一本의便利한萬年筆로 表側은太字 裏側은細字
PAT. #223605 ￥3.00以上
セーラーインキ ￥.10 ￥.20
セーラー万年筆 特約店 楠商店
京城鍾路貳丁目二十七番地 電話光化門三九六番
カタログ進呈 電話로請求하시는대로見本持參

光武劇場

上往十里町
漫畵 蛙의劍法
實寫 白銀의妙技
◆유나이테드映畵社提供
大西洋橫斷의豪華船우에서 이러나는 興味百%의자미잇는名篇!
◆유나이테드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鳥人다크라스페아빵스氏主演
벤자멘·스토로풀氏監督
薔薇色遊覽船
장·레이몬도
직나·베카를 共演
시코

中央館

永樂町 電話本局三番
◎十一月十四日부터三日間晝夜二回公開
土曜·日曜·祝祭日은晝夜二回
始映낫 一時·밤 七時半
大衆料金 十錢均一
◆유나이테드社超特作映畵
다크라스의大飛躍篇!
每日晝夜三回興行
第一回 一二、〇〇
第二回 三、〇〇
第三回 六、五〇
ペ·ヘ·ピュール·イ·フ·C·W 作品
婦夫コトウヨヒ 人島八ヤフサヒテド主演
無敵亂鬪王 阪東妻三郎
天保片割れ 會我

桃花劇場

十三日부터四日間公開
十六日까지 四日間公開
全部新十錢均一
時代劇 三千世界膝栗毛
監督 山本三六氏
主演 月形龍之助氏 阿部五郎氏
◇東活映畵社特作品
◇파라마운트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大喜劇 영머리六人組
主演 W·C·필드 찰리라클즈氏
監督 리오맥카레氏
◇三大特選名篇大會!
◇유니버살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怪奇劇 아홉번재손님
主演 빠질라스본 카렌모리
監督 리[illegible]

優美館

觀光二九五
◇파라마운트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監督 웨슬리러글스氏
十一月十一日부터 [illegible]
地の果てを行く
自殺俱樂部
파울배거나! 主演
하라크·라레오 共演
大衆特作全發聲
뉴ー스
大豫告
乞期待

通仁町、會社員家서 實彈든拳銃盜難

接踵發生한强盜搜索에뒤이어 市內各署極度로緊張

요즈음 세내각처에는 흉악한 범 강도사건이 접종하야 그 전범인을 아직체포하지못한사건만으로도 봉래정(蓬萊町)살인강도사건외에 두건이나잇서서 시내전경찰의 신경을 극도로 초조케하고잇는지음 어긔에또 다시 무시무시한 도난사건이 발생하야 변탐에가까운 시민의신경을놀래게하고잇다

십이일오후세시쯤되여 시내통인정(通仁町)팔십사번지 경성토목주식회사(京城土木株式會社)사원 [illegible]의 안해가 외출로부터 돌아와보니 방안이 란잡하야진데 깜작놀라 살펴본즉 주인이 십년전부터호신용으로가지고잇든 백이의(白耳義)제권총칠연발「부로-닝」이 십오형(一五型)실탄 여섯개가드러잇는것과 십팔금시계와 시계줄 어머니전고령베등 귀중품다수가 업서진것을 발견하고 깜작놀라 소관종로서에 신고하엿다 동서에서는 때가때인만큼 이것을 곳경찰부에 보고하엿슴으로

경찰부에서는 극비밀리에 시내각서에 이것을 통보하야 범인을 엄탐중인데 범행은 동일오후령시반부터 세시사이에 어떤 남자의것으로 추측되며 범인은 창을바트리열고들어간것이라고한다

清涼里에日本刀

散策中에發見코失色

청량리정(淸凉里町)칠십칠번지 윤주호(尹柱鎬)(二三)라는 사람은 십이일저녁밥을먹고 부근을산보하다가 일본도하나를주섯다 강도사건이 빈발하는때라 깜작놀라 소관동대문서에 계출하엿슴으로 동리에서도 그소유자와 내여버린사람을 엄탐중이다

一朝灰燼된校庭에 번쩍이는復興色

몸은갈러저도 마음은더욱굿게

火災後의壽松公普

십여일 작간동안에 그러케도 훌륭하든교사를 송두리채 불태워버린 시내수송공립보통학교(壽松公普)에서는 십사일 아침아홉시반까지에 직원생도전부가 불타버린 교사의 잔해를 처다보며 교정에 집합하엿다 학동들의 점호가 끗난다음 야중(野中)교장이 단우에올라서서 면시(?)회가 시작되엿다 위선교장으로부터 칙어(勅語)도 완전하고학동들이 한사람도 다치거나 잘못되얻이업는 깃븐 소식을 전하고 조금도 다름업시 조회(朝會)를 한 다음 공부 하든 동지 를 일흔 학동들은 이날부터 다른 각학교에 나누어저서 남의 신세를 입으며 공부를 계속하여야될형편이니 남에 못지안케수송학동의 자랑을 손상치말며오히려 화를밧구어 복으로만들자는 비장한이야기가 잇섯다 그다음 각담임선생들이 학동들의책이며 모자외투며 기타학용품 저금통장등 피해상황을 조사한후이날오후에 다음과가티시내세학교로나누어가게되엿다 즉륙학년 남녀세학급과 오학년남자두학급은 불타지안코 남아잇는그학교강당에서 공부를 계속하야상급학교의 수험에 조금도지장이업기를 긔하엿고 오학년녀자일학급 사학년남녀세학급 삼학년남자두학급 합계 여섯학급은 시내 청운공보(淸雲公普)로가게되고 이학년남녀두학급 일학년남녀두학급 합계네학급은 덕수(德壽)공보로 가게되고 별(?)교동(校洞)공보로 가게되엿다 교과서는 부내각보통학교에서와 조선서적인쇄회사에서 공급받기로 되엿다는바 이리하야 불의의 재앙을맛난 수송학교도 아모랑패업시 꾸준하게 공부를 하여가게 되엿다

불탄자리에서 조회광경

失火說이最有力

아직몰으는發火原因

십이일수송공보(壽松公普)의화재원인에대하야는 시내종로서사법계에서 십삼일에도 여전히화동이십여명을 데려다가 조사하고잇는중으로아직도완전히 그흑백이나타나지는 안햇스나 대낫에난불이고 발화처인 리과긔구실에는 아모불긔운이 업섯스나지도며 약품등 불붓기쉬운물건들이잇섯스니만치 어떠한실수로그와가티 불이난것도 가타야 경찰에서도 실화(失火)에는 버서지지 안흘것가튼 관점으로 조사중인모양인데 과연실화이라면 누구가 그과실을 범하엿는가가 문제이어서 방금 최초불을 발견한 학동들을 조사하야 그 적확한 곳 까지 추급하고잇다

自動車에치어 女職工이重傷

십이일오후열한시오분쯤에 한강통야포대입구(野砲隊入口)아페서 숭인정(崇仁町) 대동제사공장(大東製絲工場) 여공 김부녀(金富女)(二○)는 부내영정(榮町)십팔번지 룡산(龍山)택시-[illegible]운전수 리덕호(李德浩)(二○)가운전하는 경(京)구천○백십륙호에 치어 어개와 마에 전치약○주일을요할 상처를입엇다 원인은때마침 우박이쏘다진때라 전긔장

金冠冒瀆事件 平壤府會서 逐問題化

精神作興時代에 默殺는不可

當局釋明을强硬要求

【平壤】문헌에서 찾기힘들은이땅의선조 고대조선민요의 찬란한문화의 유적은 조선각지의고분에서 발굴되고잇서 세계고고학계의 시청을 집중하고잇스며 따라서 후세에남은 이땅의자손들이추앙하게하고잇는터이나 그중에서도 경주(慶州)속칭서봉총(瑞鳳塚)에서 발굴출토된 금관(金冠)은 국보로 지정되여 총독부박물관에 깁히 간직해두고 박물관에는 그모조품(模造品)만 을진렬하여 일반에게 구경식히는귀중품중에서도 귀중품인 이 금관을 평양박물관장 소천현부(小泉顯夫)씨가 무엄하게도 그기생차릉파(妓生車綾波)의 머리에씨우고 사진을찍은 불근신하기 짝이업는 망동을햇다함은 지난 룬일이십사일 본보에 그실사를 진과가티 보도함이 모독되기까지의경과를 전부발표한바 잇섯거니와 십이일개최되엿든 제사십오회 평양부회석상에서 부회의원 주간용(朱幹鏞)김정호(金貞浩)한근조(韓根祖)등 삼씨로부터 시야(矢野)부윤에게 향하야 사실전부를 상세조사하여 다음부회때에 보고하라는 요구를 하는 동시에 다음가튼 의견으로 철저규정을 요구하엿다

때가마침 정신작흥주간이며 당국이 심전개발 경신숭조(敬神崇祖)의 사상을 넓히 선전하고잇는이때임에 불구하고 적어도 부립박물관장인 소천씨가 불근신하고 무엄하기짝이업게도 적어도 국보인금관을 긔생의머리에올려노코 사진을찍는 희롱적망동을햇다는것은 전연용서할수업는 사실이며 따라서 부당국은 십팔만부민에게 무어이라고 답변과 변명을할것인가? 상세히조사하야 처분할것이며 아직도 아모런 조처도업섯다는것은 올치안타고 하야 장내를극도로긴장시켯다

(사진은 문제의왕관을쓴기생차릉파)

削除百九、注意九八 押收만千二百件

一月以後朝鮮言論處分件數

금년일월일일부터 시월말까지 십개월동안에 조선안에서 신문지법과 신문지 규측에 의하야 처분된것을 경무국에서 조사한바에 의하면 다음과갓다 치안방해로 말미암아 압수된것이 신문지법관계가 이십칠건 삭제가이십칠건 주의가 이십사건이고 신문지규측관계의 치안방해로 처분된것은 압수가 구백이십륙건 삭제가 륙십일건 주의가오건이다 또 풍속괴란으로 처분당한 것을보면 신문지법에 의한것은 삭제가 두건뿐이고 신문지규측에 의한것이 압수가이백팔십일건 삭제가 이십건 주의가 륙십구건이다 그리하야 전긔의 처분을 합하면 압수가 일천이백십삼건이고 삭제가백구건 주의가구십팔건이다

평보고쏜銃알에 農夫가마저重傷

忠北道廳某官吏의失手

【淸津】충북도청 모고관사명이 인가근처에서 꿩(雉)을 잡으려다가 농민을쏘아 중상을 입히엿다는데 청주경찰서에서는 엄비에 부친으로 자세한것은 알수업스나 탐문한바에 의하면 도청모고관사명이 수일전에 청주군 강서면 수의리(淸州郡江西面守儀里)민가근처에서 꿩을 잡으려고 발사한탄환이 그농가로날려가서 마침 일하고잇든 농민(以上全部皆秘匿)의 오른편손등을 마추엇는데 탄환이 손등으로부터 억개까지 뚤코나갓다는바 방금 모병원에 입원가료중이며 상당한중상을입엇스나생명에는 별관계가 업다고한다

한잔얼근하야 自動車에重傷

십이일 오후아홉시반경에 시내광화문통(光化門通)칠십칠번지압에서 시내관동정(館洞町)사번지 [illegible] 소에서 전차를내려 차도를다름박질로 횡단하려고하든중 도심지대를향하야 질주하든자동차에 부드친것으로 한강통(漢江通)등본의원(藤本醫院)에서 치료중이라고한다

의일행을 오지철호사는 경긔(京畿)[illegible]대시운전수 채남순(蔡南順)(二○)이와 운전하는 경(京)구천이백구십팔호 자동차에서 시내청운정(淸雲町)칠번지 이십팔번지 중국인우한진(禹漢眞)(?)이가 술이잔뜩취하야 비틀거리다가 치여서 부다리를 부지르고 전치삼주일의 중상이라고한다

天津「喜樂」女給 京城에逃避行

천진일본조계(天津日本租界)신사번지에잇는「카페-」희락(喜樂)의 녀급 충남공주(忠南公州)출생으로 전일신의주(新義州)은하(銀河)「카페-」에잇든 리복실(李福實)(二三)은 지난팔월십이일에 주인김정순(金定淳)이가 조선내로 다려간다고 말한뒤 어디론지종적을 감추고말엇다 그런데최근천진 리복실은 동양사람으로 부내모전문학교에 재학중인 [illegible] 어려는청년과 시내모처에서 가치살고잇다하야 천진총영사관으로부터 [illegible] 을 잡아버리게되엿으나 각서에수사원을파출하여왓다한다

全朝鮮아마추어拳鬪選手權大會

朝鮮의拳雄을決定 今年掉尾의豪華戰

李奎煥選手의歡迎戰兼朝鮮代表選拔戰

廿七八日、本社講堂서

계무대가는 금년도 우리스포-츠계의도미(掉尾)를 장식할 광으로써 울드릴 전조선아마튜어 권투(拳鬪)연맹주최와 본사후원의제삼회전조선권투선수권대회는 올림픽대표 리규환(李奎煥)군의 환영 권투전과 아울러 오는이십칠일과 이십팔일량일간 오후여섯시반부터 본사대강당에서 거행하기로되엿다 세계올림픽권투의 등용문(登龍門)인 이대회의인기는 해를 거듭할사록 놉파 한해동안에 련마한긔술을

오래이대회에서맹활약하야 조선대표의 영예를차지하려는 사계의 철권아들은 맹련습에 거듭하고 잇슬뿐이다 금상첨화격으로 조선이나은 백림올림픽권투대표리규환군이 세계무대에서 다련된 특이한텍닉으로 개선후처음으로 향토의 활무대에「떼뷰」

李奎煥君

하기로되여 마천하 권투팬은 벌서부터 이날의 열전을 예상하며 가슴은 뛰고잇다 주최측에서는 만반준비에 분망중인데 시일관계로 각가맹단체에 일일히 참가권유장을 발송치못하엿스나 오는 이십삼일까지 경성부황금정(府黃金町)일정목 일백삼십사번지 동연맹사무소로 신청하기를 바란다고한다 그리고 동대회에서 선발된 각급대표는 금년겨울 대판(大阪)에서 열리는 전일본아마튜어 선수권대회에 출전케되엿다

大邱刑務所脫走四 八時間만에被捉

阿火郵便所赤行囊强奪犯

東海中部線工事場에서

【大邱】지난십일일오후 열한시십분경 대구형무소에서는 수인탈주사건이 발생하야 즉시비상소집을한 동형무소와 대구서는 물론이오 경산(慶山)동촌(東村)수성(壽城)등 가로의요소를 물샐틈업시 비상선을늘려노코 대기중이엿는데 십이일오전세시경 경산군고모(顧母)역부근에서 순행중의 경방단원인 동해중부선 (東海中部線)의보선구원(保線區員)의손에 잡혀 동지에수배되엿든 대구형무소간수에게넘겨 즉시동소로호송하여 방금취조중이라는바 탈주한수인은 강절도범(强竊盜犯)징역오년의 최성탁(崔聖卓)(三○)인데 그는세상사람의기억에 아직도 사라지지안흔 작년오월 경북아화(阿火)우편소를 습격하야 현금삼백원든 적행낭(赤行囊)을강탈하야 세상을놀래게한사건의범인으로 징역오년의 언도를밧고 복역중이엿다 동공장에서는 제십공장제지공(製紙工)이사용하는 증류실(蒸溜室)의 문짝을뜨이여서 노피가십오척이나되는 형무소의벽돌담에 걸처 노코 올라가 뛰여나려 변소로 고 수의(囚衣)의내복마이은채 신천동(新川洞)에 올게처 전거고모역부근에 도착하야 수의를버서바리고 벌거버슨채 철도공사장에가서 구럭에 빠저서 옷을버렷스니 의복을입혀달라고 애원하든중 이를수상히 여인전기자경단원에게 빠칠 내 체포되엿다

面會왓든妻子보고 娑婆가그리워서

十五尺담을뛰여넘어脫出

그가오년징역에서 불과팔개월바게 복역치안코 어찌하야 탈주를 하엿든가 자긔고향인 경주건천(慶州乾川)우편소에 근무할지음에 경주[illegible]삭이든 당지최정수(崔丁水)(二○)라는 여자에게서 사랑의 열매가 나게되여 이달조순경 그가면회왓을때 그처자의 어여쁜 얼골을보고 주야로 연모하든중 이와가튼 대담한탈출을 하엿든것이라하며 두형무소에서 수인탈주사건이 종종잇섯스나 이와가티 세길에가가운 성벽을넘어 탈출한사건은 금번이처음이라고 한다

洋食革命！

近日內容改善ニ一期劃的ニ從來ノメニユーヲ全部廢却シ新シク

味、珍、量、을第一義로하고 本格的佛蘭西料理를

晝 定食 金壹圓五十錢
夕 定食 金壹圓

▲鮮內唯一の恒常淸淨한空氣轉換法에依한溫風裝置完備

京城名物 味ノ店 ぼあ・ぐらん 京城旭町入口旭ビル 電話本局(2)四六八四番 二一八九番

運動競技

武道館十六週年記念

市內苑西町에잇는 朝鮮武道館에서는 지난十一日이 同館創立第十六週年記念日임으로 同日午後七時부터 記念式을 擧行하엿는데 地方支部에서도 多數參席하야 大盛況을 이루엇섯다 그리고 同館劍道部에서는 今十一月末日頃에 南朝鮮地方에 遠征할豫定이라한다

同德女高校內競技

同德女子高普의 第九回校內競技大會는 十一日午前九時半부터 同校庭에서 열리엇는바 各部優勝級은 다음과갓다
▲籠球部=優勝級四年甲組 二等三年乙組 ▲卓球部=優勝級四年甲組 二等一年甲組 ▲庭球部=優勝級二年乙組 二等四年甲組 ▲排球部=優勝級四年乙組 二等四年甲組 ▲打球部=優勝級二年甲組 二等二年乙組

延專主催 中等學校 第五回英語雄辯大會

十四日밤培材講堂에서

연희전문학교(延專)주최인 제오회전조선 남녀중등학교 영어웅변대회는 십사일(토요)밤정동 배재고등보통학교(培材)강당에서 개최할터인데 참가학교는 경성제이고등보통학교를 비롯하야 남녀중등학교 여덟학교이라 하며 심사원은 다섯분이요 장내정리로 오전식박기로 하엿다

◇…參加學校 京城第二公立高等普通學校 京城培材高等普通學校 京城中央高等普通學校 永生高等普通學校 大邱嶠南學校 咸興永生(?)學校 京城良信女學校 徽明新學校 開城松都高等普通學校 京城梨花女子高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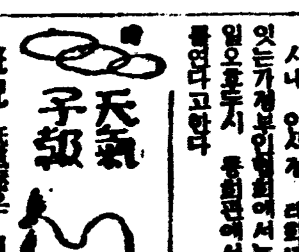
◇…審査員 尹致昊 橫山富吉 延專敎授 알·씨·코언(高彦)(延專講師) 지·떠블유·핑스(英領事) 알·코리(米領事)

◇…場內整理科 五錢

家庭婦協月例會

시내 인사정 태화녀자관안에잇는가정부인협회에서는 명십사일오후두시 동회관에서 월례회를 열리라고한다

天氣予報



槪況 低氣壓은 日本海中部에 七五六耗 高氣壓은 揚子江流域에 七七二耗 北部에도 優勢한것이잇다 氣壓은 東高西低型으로 滿洲는晴 朝鮮은 中部以北에 昨夜에小雨가잇섯스나 今朝에는 天氣가조코 北西風이조금强하다 日本內地는曇天이만타

豫報 京城地方은 今夜는晴 明日도晴

昨日最高 九度六
同最低 零下一三
今朝最低 零下二
今日正午 五、九

中風·高血壓·神經痛은 血液이濁한原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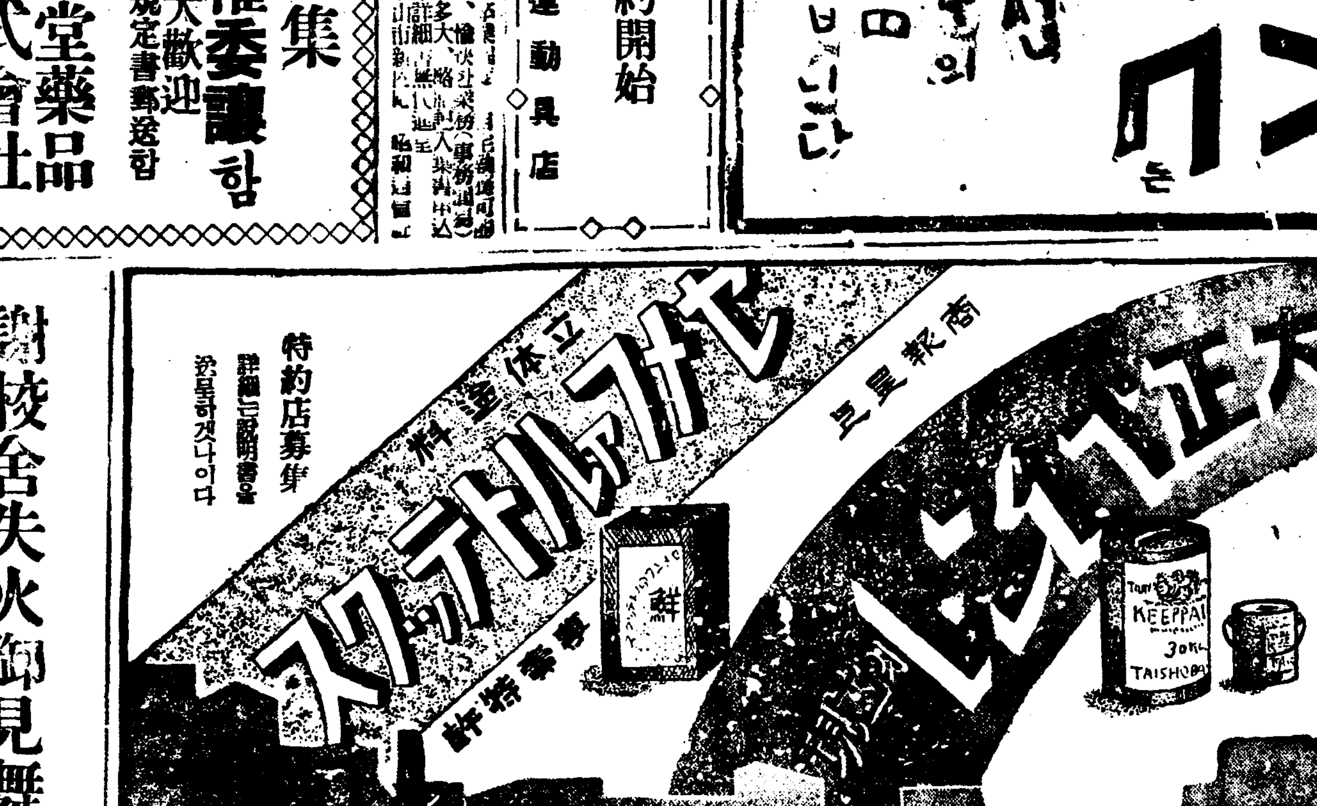
血液을淨化하야 循環을조케하면낫는다

不治가아니다

수연초 ... 사는 전문의학박사와가티 이병의 원인을 철저적으로 연구하야 뇌일혈, 변비, 당뇨병, 신장병, 대장염, 위장병, 난산등으로 혈액이탁하야순환이 낫버지는것임으로 혈액의 흐름을 청정케하고 순환을조케하면 두통, 이명, 현기, 동맥경화, 신경쇠약, 숨이갓부고, 져리고, 족중마비, 등 ... 今津硏究所로 ... 이 연구에의하야 속히낫게하도록인도한다

新富座 十一月十四日(土)より 大衆料金
薔花紅蓮傳 主演 文藝峰 ...
怪人마부세博士
로이드의爆彈將軍

ランラン チック
당신께서 발르시고 잇는
現代조선 油性品中의 最高名品입니다



大正ペイント 新発売!! 塗料界의權威 (敏速配達)
特色 一、性質堅固 二、外觀優美 三、模樣自由 四、塗替永年不要 五、價格低廉
大正ペイント總代理店 京城鍾路四丁目 鮮一商會 電光化門一〇六九
特約店募集 詳細는說明書로 送呈하겟나이다
立体塗料 ヒカリペイント 大阪ヒカリペイント株式會社製

○白狗號競技用 スケート 豫約開始 ○定價表(カタログ)進呈 京城府中學洞三 製造元 崔學基運動具店

靑少年 通信社員募集

支社長募集 一道總販賣權委讓함 新進有力事業家大歡迎 希望하시는분은申込次第規定書郵送함 京城西大門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驚勿れ 耐久力 五千五百時間 光明電燈
便利・經濟・光力强大なる事實に驚く!!
自轉車、手提用 家庭、倉庫、工場 商店等の夜警及備用 其他百般の燈用向
賣れる! 飛ぶ! 物凄い注文
光明 私設 電燈用途
一組(ケース 電池共)二圓 充電器 三圓
一組金四圓五十錢(電池、電球共一切附)
宣傳用普及型特價 ▲五燭光代用 金七圓五十錢 ▲十燭光代用 金十圓 ▲十六燭光代用 金十五圓 他に高燭光有
特約店募集 月收多大なる有利營業 申込契約者には、振替支給す
京城府黃金町四丁目 松下電燈製作所 鮮滿發賣元 東洋電燈社
(二百軒以上電、電力供給の求めに應じます)

謝校舍失火御見舞

京城府尹

壽松公立普通學校長

謝近火御見舞

京城壽松町八〇

淑明女子高等普通學校

從任漢鳳大夫人全州李氏以宿患今月九日午前八時四十分別世 玆以告訃
發靷日時 丙子十一月十四日
發靷場所 [illegible]
丙子十一月 日
護喪 李沂
嗣子 李漢相 [illegible]

악질을 전멸합시다

림질치료원리 (治療原理)

림질은고노쿡겡기라는림질균(淋菌)이남녀의성교(性交)로인하야그균이생식기로드러가서점점번식하야생기는병인바림균은매우강렬(强烈)하야빠리가(淋絲)성하게빼처서번식하는성질임으로날이갈사록신체내부로기피드러간다 그럼으로방광염(膀胱炎)고환염(睾丸炎)『산중』『자궁내막염』가튼위험한병증을세로변하기쉽다 그런대병균이사람의피부로드러오면혈액(血液)에잇는백혈구(白血球)가그병균을막어업새기위하야피를맹렬히싸홈을하는것인대만일그균이강하면백혈구가도리혀죽게되나니이죽은백혈구가곳고롬이라 이와가티신체속에는균을막어업새는힘이천연으로잇슴으로조곰만힘을도아주는약이합리적(合理的)으로드러가면당연히병균은전멸할수잇다 이러한병리가(病理)판명되야다년연구한결과림질치료원리(淋病治療原理)가발견되엿다

一、림균은뿌리가깁히박히는성질임으로내부로부터그뿌리를아조업새지아니하면조곰에새싹이다시나듯시병이다시도지게되야거근하지안한다

二、사람의신체에는천연적으로혈액중에백혈구가잇서서균을막어업새는힘이잇슴으로살균될약제가조곰만드러가면균이깁히못드러가게할뿐아니라전부몰사식힐수잇다

三、위장으로흡수안하는약으로염증(炎症)을아물게못하여도리혀연약한점막을(粘膜)상하게한다

四、약이위장으로흡수되여신체가부를거처방광을통하야요도에까지이르면병균을완전히전멸식힌다

五、외치료국부에넛는약이나주입세척하는법은깁히못하며병균이압축고노리허약을피하야점점속으로드러감으로업애하다하물며깁히박힌병균은절코전멸되지아니하야다시재발되고또한그병균은더욱강하게되여악성으로변한다 내복약을먹어생리작용으로신체내부에흡수되여속속드리백힌균과뿌리를말려죽여야된다 약무적(天下無敵)의백혈구와합력(合力)하야천하고악성의림균이라도씨도남거지아니하고전멸식힘으로다시후환이업시깨끗하게되는고귀한약으로되는내복약구로벨을써야한다

구로벨 일주일분이 오원 이다(일주일분에 오원이라는약은내외국을통하고드물다

다른약은대개 一、二원으로부터 一、二원이다

왜그러나하면 구로벨에는 엇기어려운고귀한약제가만히드러간고로 그러타

결국 병이 속히 치료되는것이다

갑싸고오래먹는약은 효력이업스니 결국갑시싼것이아니라병만점점더심하야지고 돈만거저내버리고만다

병은일조를다투는것이다

림질에대하야

만타만타하여도 림질대하증 약갓치만흔약은업다 수천가지는될것이다 그러나조선서는다—속드러가고지금은 그자체가업다 십허드물게되엿다 그야말로 해가뜨면별이업서지듯키 전세계에서제일조흔약『구로벨』이나온 뒤로는거의다—업서젓다 조선서 림질약으로 원장광고내는데는 『신성당』뿐이오『구로벨』뿐이다。 왕우에또왕은업다 무엇보다 제일감사장이증명하지안는가 위대하고굉장하도다 구로벨의힘이여 미구에전세계의 임질대하증은 전멸할것이다 별별큰소리다—하야도 환자가보낸감사장은 업지안는가당신이무한히고통하고 애통하는팔을볼수업서이『구로벨』을 하날에서내리신것이오니 지금 곳 꼭 잡스시오일각이 급하오니 이런분은 곳쓰시오

남녀 만성림질부인 적백황대하증 남녀냉병 오좀소태 월경고르지못한데며 하혈등으로 별치료를다하여보고 별별약을 다써도 백약이무효하야 돈만허비하고 근치안되여 고통하는분은 주저할것업시 제일먼저 세계제일의 구로벨』을쓰시오 참신기하고 틀님업시낫는자신이잇스며 환자의안심과신용을어ᄭ기위하야 만일에무효면 절대책임지고 드리오니일각이라도 빨니지금곳쓰시오

특제구로벨의효능

남녀만성림질 (男女慢性淋疾) 림독관대하증 (淋毒關起因帶下症)…重製外、요도염 (尿道炎) 고환염 (睾丸炎)、방광염 (膀胱炎)、섭호선염 (攝護腺炎)、여자오종소태(女子淋濁)、관절염(關節炎)、자궁내막염(子宮內膜炎)……重製外、라팔관염(喇叭管炎)……重製外、란소염(卵巢炎)、림독성제증 (其他淋毒性諸症)

약갑 특제 구원 만성용오원 급성용삼원이오 오원이나 삼원이나 다일주일분이오 위장을상하지아니합니다

京城西大門入口 (제일큰백옥양관)

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電話光③三三四番 振替京城四九五〇番

약효가제일 급속합니다

림질、대하증、냉병、명약 구로벨

眞實한對話 (진실이약이)

客 림질에 조흔 약이 잇다지오、

主 네 잇습니다 구로벨이라는 약입니다

客 잘 듯습닛가

主 네 잘 듯습니다 약을 쓰신 분들이 잘 증명하십니다

客 광고로도 잘보앗습니다만 광고와 갓치 약이 실상 좃습닛가

主 물론입니다 광고도 한두번말이지오 약이 부실하고야 엇지광고를 내겟습닛가 만일약효가업고 광고만 내면 처음에는 혹 광고를 보고 쓰게되나 그다음에는 그광고가 효과를 일케됩니다 암만하야도 약효가 조아야 그광고가 정말 생명이 잇는 광고가 되는것입니다

客 참 그럿켓습니다 그러면 한제주십시오

主 네 감사합니다

客 그런데 구로벨을 쓰면 위장은 안상합닛가

主 그런 염녀는 업습니다 약효가 속하고 약기운이 강하고도 위장은 상하지 아니하는 것이 구로벨의 특정입니다

客 태중에 써도 좃습니까

主 그럼요 병이 잇스면 수태도 못하거니와 만일 태중에 잇스면 그병독이 전염됩니다 무죄한 해에게 그병독이 전염됩니다

客 그러면 이약을 써야 합니다 더욱 써야 합니다

主 그러면 한제 더주십시오 우려내

客 외가리 갓치 써야하겟습니다

主 그러시오 이약을 잘쓰시고 걷고 속히 고치서서 무한행복을 누리십시오 강

大神聖堂의陣容

支社、代理店、特約店一覽

◎支社 全南光州府明治町四丁目二七 光州支社 宋淳炯
黃海道海州邑南本町一六〇 李光澤
京畿道水原邑 孫良明
軍威 孫德淳
長淵 李日貴
平北宣川邑

市內卸賣總代理店 鍾路三丁目 第一藥房 尹璿

忠南之部 代理店 天安邑內 徐光年
慶南之部 代理店 晋州 朴基俊
黃海道之部代理店 黃海道長淵邑 金生藥房
咸南之部 代理店 咸川郡汝海津 金仙藥房
咸北之部代理店 永興郡宣興面 魚大津 閔泳瀞
惠山線合水驛前 永生堂藥房本店

京城之部 特約店 京城府淸凉里町一二九
京畿道之部 特約店 東豆川驛前
仁川府外里 金浦邑
開城府郡橋市 始興郡新東面平址里 永登浦
京畿道水原邑內 京畿道陵谷驛前 京畿道素砂驛前 龍仁郡南四面鳳鳴里 水原郡鄕南面發安里 漣川郡南面華山里土橋場 永登浦町五三三 楊平郡龍門面新店里
忠南之部 特約店 大田府大東町四九 洪城邑豊農園 成歡驛前安成商店 扶餘郡良化面草旺里 公州郡錦町 全義驛前 忠南溫陽溫泉
忠北之部 特約店 淸州郡米院面岐岩里二〇九 忠州邑錦町三八 忠州邑淸水町一二〇
全南之部 特約店 順天邑金谷里 潭陽郡大田面谷城里 木浦府竹洞木浦劇場前 海南郡邑內
全北之部 特約店 群山府藏財町一四五ノ二 金堤邑內 井邑郡笠岩面大興里 井邑郡七寶面白岩里 茂朱郡赤裳面北倉 益山郡王宮面興岩里 全北裡里邑內南中町四六二
慶南之部 特約店 昌原郡昌原面鎭路 京釜線勿禁驛前 咸陽郡安義面錦川里 河東邑 晋州邑明治町 晋州邑昭和町大明堂 晋州邑日出町一〇九 晋州邑日出町六二 晋州邑日出町 晋州邑榮町 馬山府係町 馬山府石町 釜山府寶水町養宗號 府山郡青良面開谷里一六 居昌邑內 蔚山郡凡西面斗山里 密陽驛前 泗川郡西浦面舊呼里 晋州郡邑明治町五五 馬山府富町市場入口 天和藥房 南海
慶北之部 特約店 慶北榮州邑 軍威郡山城面三山洞一〇六 尙州郡邑外雀里 書山邑本町 迎德郡丑山面景汀里

平北之部 特約店 平壤府新陽里一七九ノ六 平南价川驛前 安州郡立石面 大同郡斧山面 碧潼邑內 龍岩浦農民共生組合

黃海道之部 特約店 海州郡海州邑西榮町一五二 ……

咸南之部 特約店 馬場驛前 咸南永興驛前 京元線南山驛前 新浦邑內 定平郡新上驛前 永興郡高寧面三興里 豊山邑內市 長津郡郡內面上梅田里 新高山驛前 北靑邑 北靑驛前 北青郡下東書面萬景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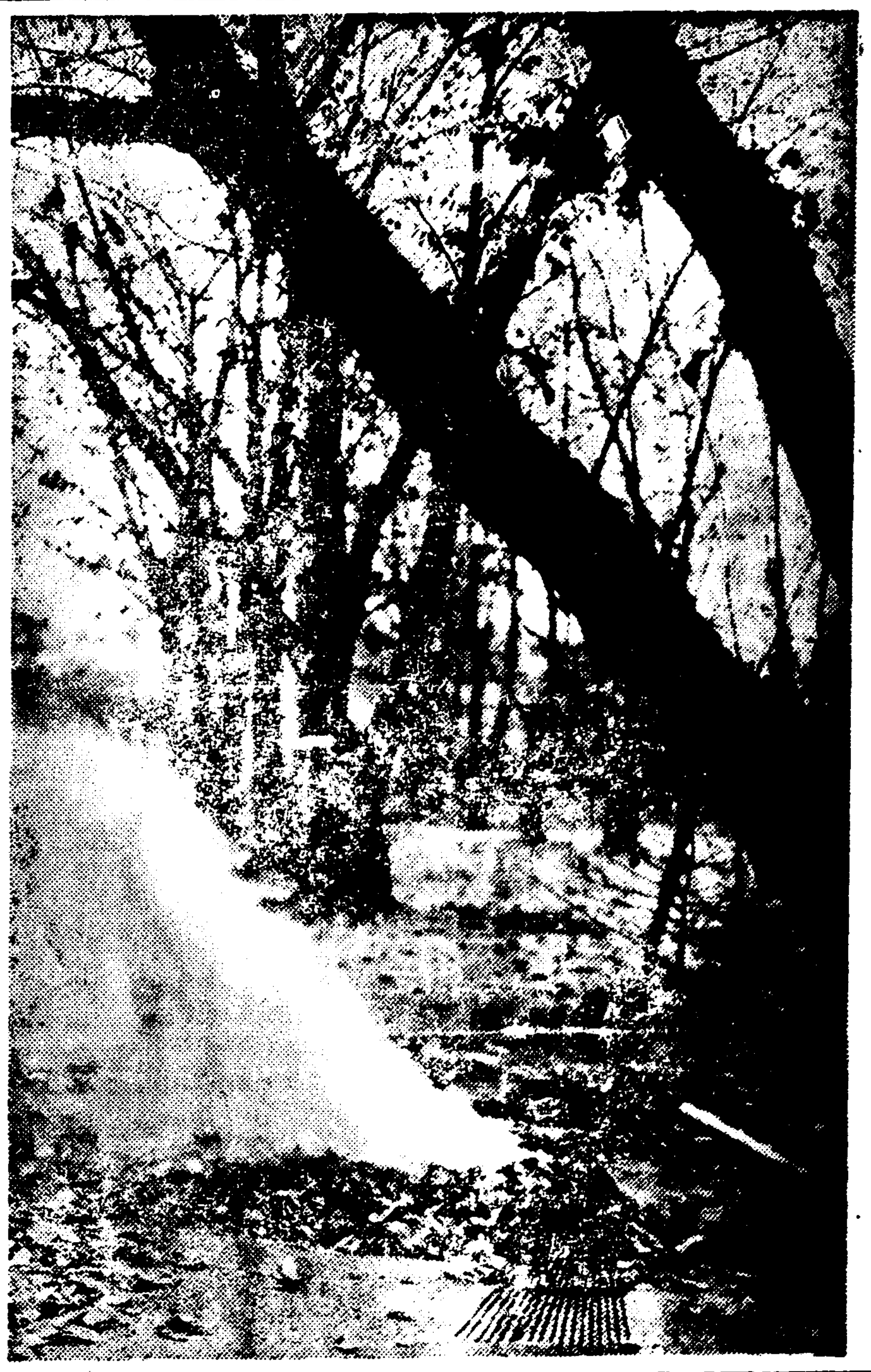
咸北之部 特約店 吉州邑內 城津港旭町 城津郡鶴南面龍洞 雄基港本町 會寧邑大正通 城津港旭町 淸津府新岩洞 朱乙驛前 明川邑明川洞 雄基邑上本町 雄基邑本町 羅南邑初瀨町 城津邑旭町 羅南邑生駒町 明川郡下加面酒浦區內花台市

鮮外之部 特約店 名古屋市南區中山町 島根縣美濃郡北見上村小原 間島龍井市大通路 安東縣平安通九丁目三番地 蘇州國三江省依蘭縣三姓市南關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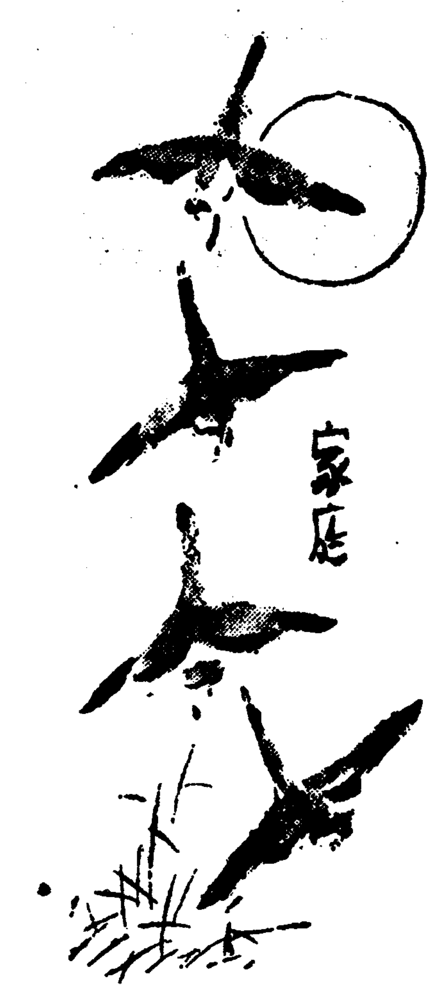
支社設置大募集

各道及 府廳所在地에서 支社經營하실有力한新進 事業家 大特典募集 支社希望이라明記하시고規定書請求次第無料郵送함

京城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謹告



家庭



겨울되면、느는 까스와 숫갑

—경제할수 잇는법—

까스 이것은도회지에 한해서만 불수 잇는 연료(燃料)입니다。스도ー브나 반찬작만 하는데나 간단한음식을 지을때 쓰는것인데 겨울이 기퍼갈사록 쓰는량이 만허질것입니다。그러나 까스는 쓰는 요령에 따러서 대단히 분량의차이가 잇스니 누구나 이것을 쓰는 사람은 요령을 잘 알어야할 것입니다。열원(熱源)으로부터 나온 열이 남비나 옷에 옮겨가는 방법은 하나는 열의전도(傳導)에 의하고하나는 열의복사(輻射)에 의하는것이니 그옮겨오는 열원의 온도여하에 따러서 열량이 적우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경제되는사용법은 온도를 올릴것(과될수잇는대로 적은분귀로 완전히 태일수잇는 방법을 취하도록하는것입니다 까스구녁에서 쏘다저나오는불꽃중에 푸른부분의끗치 남비바닥에 대이도록 공긔구멍을 열도록하여야 합니다고렌든 음식이 끌키시작함을보아서 점점 화력을 약하게할것입니다 끓는뒤에는 아모리 화력을 노펴도 더끓지안는법입니다

목탄 목탄은 첫재물건을 잘골려사야만합니다 목탄은 아모리쓰는 요령이 능하다하더라도 품질이 조치못한 목탄을 사서쓰면 경제는그만두고 손해로마칠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탄은 첫재가늘고단단하며 빗이 윤택해야만합니다 숫장수 문자로『고마루』(小丸)『쥬ー마루』(中丸)하는것이잇는데『고마루』라는 가는숫치 제일좃습니다 숫포가 단단하고 입부며 기룸기가도는것이래야만 속숫이좃습니다 웨그러냐하면숫포근수여하와포장여하로검사에 통과불통과가잇스며 협잡부린 포축에는『고마루』란것을 모다 밤나무나 소나무 숫으로너허서 조치못합니다 숫중에는 참나무숫치제일 조흔데 갑이몃전차가 잇더라도 쇠소리가나고 빗치뽀ー얀분이된것가치보이며 윤이나고 가는것을 골려사다가 남비미치 번들번들한 남비를 쓰지말고 검게칠한 것으로 쓰되 가벼운 돌을 서거서쓰면 대단히 경제됩니다。

가정의화

목이쉬고성대가압허

問 삽십이세의 녀자인대 륙개월전부터 목이쉬고 성대가아품니다 이곳에서 치료를바덧시나 조금도낫지안습니다 또는혈액을 금사하여보앗스나 아모이상이업다합니다 무슨병이며 치료방법을 가르처주시기 바랍니다 (平北一讀者)

答 륙개월전부터 목이쉬고성대가 아푸며 혈액에는 이상이 업다하니 매독과는 관계가업겟지요 신경마비로 그럴수도잇고 또는 종양이 생기여 그럴수도 잇스며 또는결핵으로도 그럴일이잇슬것이오니 이비과전문의에게 다시진찰을 바더보시고 또는 폐장에도이상이 업는지 한번내과에가서 건강진찰을 바더보게하시시요 (惠世病院長 朴秉來)

〝二錢〟상관에 舊情을끈코

〝피죤〟으로부터 봉지담배로

—신사체면은 돌볼때가 아니다—

무러라!『마드로스・파입』

[illegible]부터 주지에 담배스갑이 올랏습니다 올려도 적게오른것이안이라 일약이할이상이 올럿것스니 큰문제입니다。애초에 담배를 피우지안한다면 문제는 간단하겟스나 밥은굶어도 담배는 안피울수업다는 사람이 오죽만습니까 그러고보니 담배도 결국은 우리네의 생활필수품의하나임에 틀림업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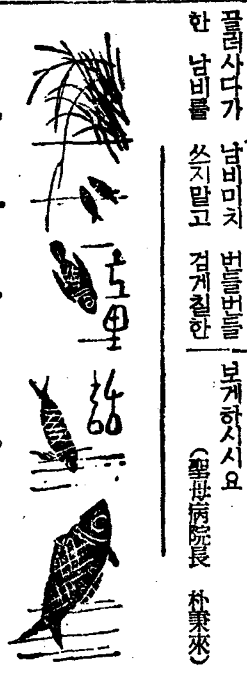
그러면 지금까지 십전짜리피죤을피우던사람이 륙가륵(피죤)을십이전이나 주어야 살수잇고 오전주고사던 마코ー를 륙전을 주어야 손에너흘수잇스니 단지 일전식이와 주머니 경제가 위협을 당할뿐만아니라 부인네의 경제도 위협을당할것입니다 일이전의 차이가 큰것이 안인듯하나 실상냉정히 생각해보면그것도 소홀히할수업는 문제일것입니다

담배갑이 한갑에일이원이가때 우대현에 『마코ー』를 한갑으로라도 안피우고는 못배이는 형편이라 어떠케 하면전과다름업는 일용으로 담배는 방배대로 피우고 경제상으로는 큰위협을 밧지안울가? 여긔에 조흔 방책을강구해내야만 하겟습니다 지금까지『피죤』을 피우던사람이 갑이이전이올럿다 하야『마코ー』로 전향하는것도 한가지 방책일것이나 독한『피죤』을 피우던사람이 『피죤』한갑의 분량을 가진 요구를 충당시킬수 업서서 두갑을 피우다던지 갑이헐한 담배라하야 헙하게피워버리던지 길거리에서 물고가다가도 웬만치 타면 길게남은담배를 그냥아낌업시 팽개처버리여서는 도로혀 십이전주고 옛날피우던『피죤』을 피우는것이 경제로나 위생으로보아 조흘것입니다 다음으로가튼『피죤』을 갑이올럿다하야 전보다 아껴서 피우는것도 한가지방책인데 이것을 허구헌날에 조곰도 번치안코 껴아피울만한 구든뜻을 가진사람이라면、애초에 금연을하여도 될수잇슬것입니다 그리고 아마긋내실행하기가어려울것이니 이방법은 그다지 조흔방법이 될수업습니다

그다음에는 권연(卷煙)대신에 대담배를 피우는것ー이것은가장 리상적인 방법이라고 볼수잇습니다 대라도 옛날조선대긴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도라단일수업고 불편할것이니〃마도로스파입〃을가지는것이 조흡니다 한개에 오륙십전 주면살수잇스니 이것을사서 쓰는담배ー장수연 불로초 희연 가튼것을 사서피우도록 하는것입니다 물론 쓰는배도 갑은올럿스나 원래이것은대담배라도 천대받는 형편이라경제로보아서는 오분지일밧게는더들지안습니다 그리고 모양도대단히 조흡니다 요새말로는〃스마ー드〃하고도〃모ー던〃미가 잇스며 신사적인 무엇이 나타날것이니 대단히 조흡니다

〃마도로스파입〃에 너허울 담배로는 불로연(不老煙)이 제일조흘가 합니다 한통에 십이전식하니 이것한통을사면 삼일간은 피울수잇스며 맛도조치지안코 독특한향긔가잇습니다 장수연 희연은 이것보다 더옥경제가 될수잇스나 이담배는 거칠게 쓰는것이라 간혹 기가석기고 성질이 이상해서 불을 부치면 부푸러이러나는 폐단이 잇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양복쟁이가 피우기는 조금편할것입니다

집안에 계신부인네들은 이것을 피우는것도 조흘것입니다



왕자와거지 ⑮

마ー크・토웬 作 崔秉和 譯

『자、한번더 네잡고대를들려바라——무어라고 그랫드라 네이름을?너는 누구라고?』이무레한 말에 왕자는 얼골을 붉커가지고 성을내면서、날카롭게 칸티를 흘겨보면서

『너와가튼 천한백성이 나에게향해서 말을하라고 명령을 내리는법이 어디잇단말이냐。똑똑이드러봐라 악가도말한바와가티 나는 에드와ー드이다。황태자이다』

이대답에 할멈은 숨이맥힐듯이 깜작놀라서 멀거니 왕자의얼골을 바라다볼뿐이엿습니다。──그팔이우습다고 칸티는 허리가 부러지도록 웃고잇섯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누님들은 마음을놋칠못하고 톰이 너무 함부로말하므로 어느지경에까지 이를까하는 두려움도 이제는 이저버리고 얼골에는슬픈비참잔뜩띄면서 왕자거드로가까히와섯습니다。

『아! 톰아 불상하게도 이애는──』이러케말하면서 어머니는 아페압헤。꾸러안드니 두손을 어게에언드니 넘처나오는 눈물속에서 왕자의 얼골을 이리 저리 바라보면서 얼마동안 말업시 잇섯습니다。

『네가 이러케되것은 모다 네가 쓸대업는책을 읽은 까닭이다。하여튼 그왕자구럽잇는책만 읽드니 그여히 네가 밋처구나。』왕자는 올면서 슬퍼하는 부인의 얼골을 바라보앗습니다。

『부인、마음을노아라、너의아들은 몸성이잘잇다。지금 근심하는것처럼 밋치지는안엇다。거짓말이라고 생각하거던 나를 왕궁(王宮)으로 데려다다구。아버지임금님께서는 그곳에서 나와네아들을 바꾸워줄것이다。』

『뭐、너의아버지가 임금님이시라구? 톰아! 재발 에미의소원이니 그런말을 입바게내지마라。만일다른사람의귀에라도 드러가보아라。너뿐만아니라 집안식구가몰살을당할테니。──톰아! 얼른 그럼꿈에서 깨여다구 예전생각을해바라。그리고나를 자세히바라。알것지?네아페잇는나는 너를낫코또 이세상에서 너를 제일사랑하는어머니가아니냐。』

『아니다。그럿치안타。』하고 왕자는 가만히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하나님께서는 아실것이다 너에게 근심을하게하는것은 안되엿이지만 정말 너를 만난것은 오늘이 처음이다。』

이말을듯자 톰의 어머니는 펄석마루바닥에가 업드리게 두손으로 얼골을가리고서는 몸과마음이 부서지는듯이 울기시작하엿습니다。

우리차지

〝바람〟

바람을 누가보앗는가
나도너도 못봣지만
나무닙이 건들거릴때
면
바람은 지나가지

바람을 누가보앗는가
너도나도 못봣지만
나무가 머리를 굽힐때
면
바람은 다라나지

(글쓴사람 윤태웅)

크리스티나・로제티 原作

좀〃자〃미〃적〃은것!

음식점에서내놋는물수건

요사히는 어느음식점이나 양식집을 물론하고 손님이 처음자리를잡으면 의례히 물수건을내여놋습니다 이것은 중국서건너온풍속인데 중국가튼데서는 몬지가만코 바람이세차서 몬든얼골을 씻치기위하야 업지못할것입니다 그러나 서양가튼데서는 절대로 쓰지안습니다 서양서는 식탁에 안기전에 미리 화장실(化粧室)에서 손과 입속을 말끔하게씻는 습관이 잇습니다 이것은 추어지는 겨울과함께 더운물수건을 쓰게됨으는 것은 조흔일이지 모르나 실상은 위생에 어떠한영향이 잇는지 잘아라보고를 필요가 잇지안을가합니다 큰료리집이나 양식집가튼데서는 위생설비가 잘되여잇스니 상관업지만 적은곳에가면 물수건이 그냥한번술쳐찌기만하고 잘씻지도안흔것이나올니다 전에쓰든사람의 때와땀자욱이 그냥남어잇는것이 수두룩합니다

이런것을 쓰는것은 위생에 대단히나뻡니다 향료도 손도되지안코 다만 떡냄새를 엽서하는정도의것이 만히잇는데 이런것은 내여노트라도 쓰지않토록 하는것이 조흡니다 실상남자는 그것을 가지고얼골도 씻흘수잇스나 부인네는 여러사람 아페서 얼골을 닥글수가업습니다 그리고 화장이모다 벗겨짐으로 손을 씻치는정도에 끄치는것입니다 찬 거리를 도라단여서 얼골피부가 얼엇는데 급작히 더운물수건으로 얼굴을 닥는것은 피부의 세포조직을 파괴시키며 얼굴을 거칠게하는것이니 주의하도록하지안흐면 안될것입니다

미국의명물

백⼁무살된노파

미국 『뉴ー멕시코』주의 『알부르그』에사는『아나타샤・카마르고』는 『멕시코』계의 노파는 금년에백열여덟살이나 되엿는데、평생에 네번재나 국적을 곳처보앗답니다。

최초에는 서반아령토이엿고다음에는 『멕시코』로 변경되엿스며 그다음에는 『콘스타ー』농회국으로 되엿다가 미국의 일주로 합병되엿스니 네번재 생다른 국긔를 처어다 보앗습니다

그는 근력이 여간조흔것이 아니랍니다 눈빗가티 힌머리를내여두르면서 재봉과 편물과 세탁과 요리까지를 손소한답니다

이노파의 막내아들은『엘바소』에 살고잇는데 나히가 칠십이 넘엇습니다。그러나 이늙은이는 칠십에나는 막내아들을 볼때는 『마이 리틀뽀ー인』ー이예야 이예야 하고 부른답니다

이 노파는 그동안에 남편을 돌이나 사별하엿는데『지금사람들은 웨그러다지 일쯕이죽는지 모르겟다 우리가 젊엇슬때는 몸들을 건강케하고 속히 죽지를 안햇는데…』하고 가끔옛이야기를 한다고합니다。

★曆★ 十一月十四日(土) 舊己亥十月大(初一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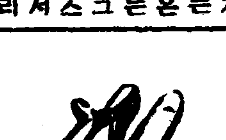
庚子・土・氐・除

●祭祀移徙動土上樑卯時安葬啓攢에宜함

●小雪二十二日(舊初九日)

●大雪七日(卄四日)

유ー모어小說

 姓女씨 (七)

金熊超 作・畫

戰慄의記錄 (1)

여메서량! 소리가난드시 네사람은 일제히 놀래엿습니다。

태하군이 팔목을 비끄고 시계를보니 한시사십분! 규정의 점심시간이 사십분이나 지낫습니다。

『벌서 이러케 됏나!』

『난모르네 민보군이 책임지겐』하고 판수군은 제일먼저 앞장서서 뛰어내려 가기시작햇습니다。

밤불판에잇는 륙직한 청룡도가튼것이 금방목에와서 닷는거가테 모두가겁을해서 따라나려 갓습니다。맨 뒤떠러지면 회살이 꽁문이에 다움듯시븐지 제마다 압서라고 애들을썻습니다 월급쟁이의 강박관념중에 가장위력을가진것은 이 청룡도입니다。

사무실문을 열고 룰밀드시썩 드러서니 과장박창옥씨가 벌서 그뎁직한 레이불압 회전의자에 자리를잡고안저 처음에는 네사람을 못보체하고잇섯습니다。그려다가 고개를드럿습니다。

『모두들 어데 갓섯나요?』

네사람은 모두 제밋제밋하면서 먼저 입을 열라고 들지안코 서로 얼골만바라보며 자네가말하게 하는듯이 눈짓만 하고 섯습니다。

『아ー니 무슨비밀회의가 잇섯소?』

과장은 그중에서 변장자인권태하군에게 시선을 꼬잣습니다。

『아ー니올시다。저옥상에올라갓다가……그만 느젓습니다』

『여기서 옥상까지 비로봉을라가기만이나 한가요?』

『네?……』

태하군의얼골은 벌서 꼽배기 한잔이나 한거처럼 화확다릿습니다。

『회사일로 무슨공론이 잇섯다면 남가튼사람도 좀 끼어줄럽이지……』

『……』

『스트라익을 할말이면 무슨조건이나 내세우고 할일아니요』

네사람은 공숙천만해서 엉덩이를 뒤로빼고 고개만숙이고들 잇섯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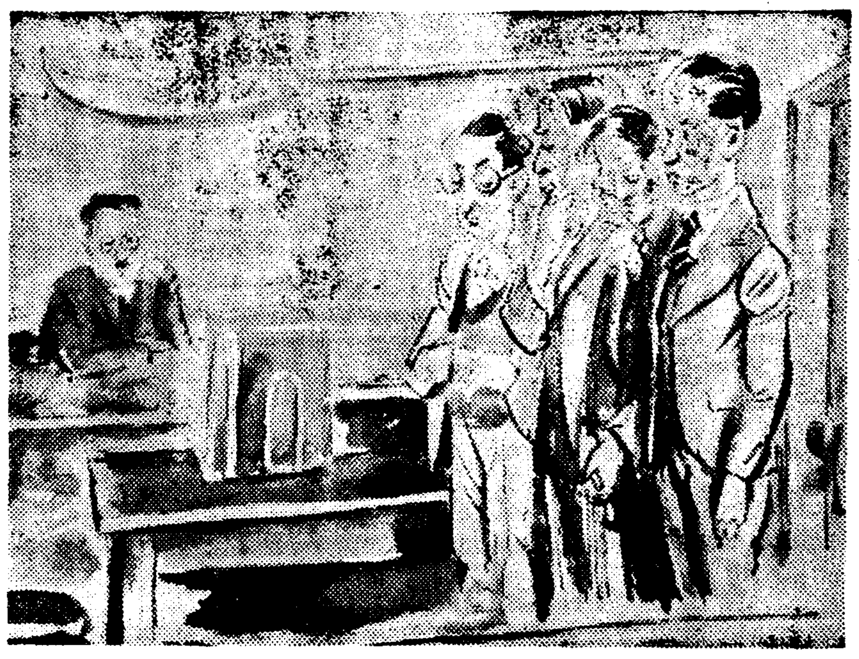
『어쨋거나 그러케 서잇슬것이 아니라 제자리에안지시다。안저가지고 얘ー기합시다』

과장은 이한마디를하고 초인종을 뎅뎅울렷습니다。

(안해를부르는 초인종은 아님니다!)

급사가오자 과장은 서류에도장을찍어 중역실로 넘기고나서 쳐다보는듯이 다시 말을계속합니다。

『전에도 한말이잇지만──여러분은 엄에잇서 각부의책임자요 나는 그우에안저 여러분들을 하는책임을 가지고잇는자인데 듯기실키나 듯기조커나 나로는 여러분께할말은 해야한단말슴이죠 여기서도 명세이 정신시간이잇서 정거장 차시간대듯이 꼭파직히라는것은 아니지만 그시간을 삼사십분식에누리를 해서는 자미업단말슴이요。요새 근십여일을두고 가만히보니 우리과에서는 의례히 이에누리가 만습디다 그야 사무에지장이 미치지안는정도의에누리겟니까 그리허물할바는아니지만 제마다 자리를비어버리고 업스면 긴급한일이잇슬때 퍽곤란하지안켓소。그런데다가 오늘은 사장께서 사무열람차로 이과에도 오셧다가셧스니 다른과에서는 엇대시는지모르지만 우리과의 체면이 어디됏소 그러니 그점을좀주의 해달라느 부탁이요……그리고 판수씨 브산대길상회에서온 서류는 악가 서무과에서 독촉이왓길래 내가 해넘겻소』



『네?……참미안하게됏습니다』

관수군도 등이확근햇습니다。무의식적으로 서류를 정도하면서 『이자식아 좋와라!』하는드시 열자리에안진 민보군의 발스등을 꼭밟앗습니다

이과안에잇는 이네사람의말욱빈다면 과장박창욱씨는 인상이 조코 또호인물입니다。부하에대해서 리해성이만코 술잘먹고 잔놀고…그러치만 고집을세우면꺼기지안는 그것이험인데 엇더케 생각하면 이것이 또한 그의특이한 장사점일지도 모릅니다。

네사람이 옥상에서 나려왓슬때 과장의말거조가 대단히 험한듯시퍼 처잔은 불안을 늣겻섯습니다 누가무슨일을 저지렷나해서 물길한예감까지 떠올랏스나 결국은 또한번 과장은 호인이다하는 인상만엇고 마랏습니다

얼마쫌지나 과원들의 흥분이 가라안질만해서 박창욱씨는 건너쪽에 마주보이는 민보군과시선이마조치자

『민보씨』

『네』하고 벌떡이러섯습니다。

하고 다시 일울여렷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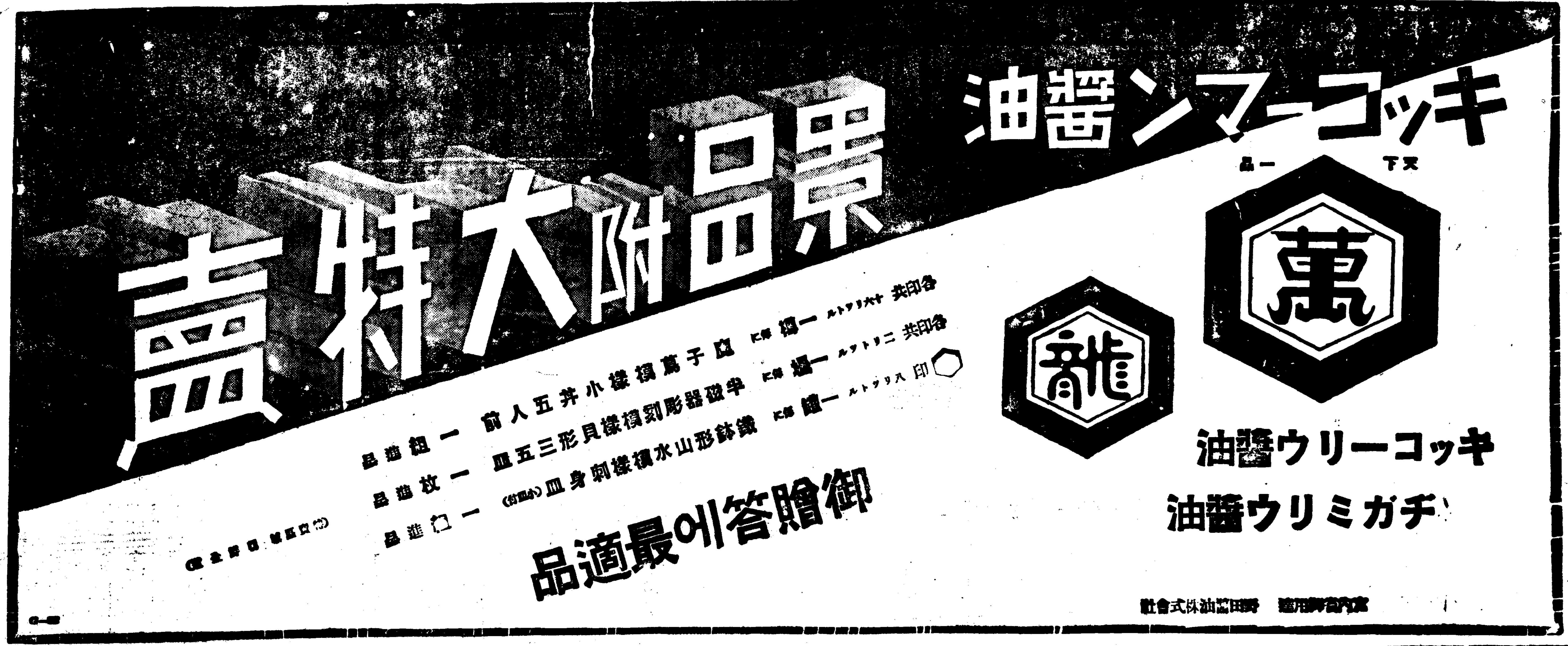
『아ー니안지시요 안저말하시다 간밥에 어데갓섯소』

『네?』

민보군은 불에데인 사람처럼 창황하비처 보엿습니다。

『내가 다알지。그러케 캐거서 야단할께아니라 우리들한테 고백하란말이야 하하하……』

과장의 우숨소리는 결코불안을주는 우숨소리는 아닙니다



遲遲下山歌

眞興王北巡碑巡禮記…(八)

李殷相

嵯峨한 가운山上에 뚜기는 式典은 끗낫다。모든사람들은 山下의 普賢寺를 向하야 나려간다。

그러나 白頭에온뒤나는 얼른 下山하기가 싫혀 金剛에 맘라가는 잔디비테 자리를잡고 멀리멀리 東海를 바라다보며 시름업시 안젓다。

同行의 諸氏와함께 흥은 歷史的談論을 바꾸고 흥은 文中의 缺字를 채우기도 하는 동안、나는 또한 내머리의 따로가는곳 잇슴을 覺하기어렵다。고요히 귀를 기우리매 碑는 큰소리로 오히려 우리를 꾸짓는듯하다。

노픈재를 허위허위 오른뒤엘 내땅을 멀리멀리 잘살라 함이어늘 오늘은 어느곳에가 무슨碑를 세우러나。

비바람 有心하야 흙에밀어 무든것을 무상할 날이로게 다시여기 거더나나 밤나지 東海물바라 울며이 섯스라고。

그때는 新羅의 眞興이 그거모스란들나 能事나 사랑을 아 이뼈를세우는 그손을 씻기때 통아가 그대로 버릴일이엇다。

白民族이 군데군데 아름답고、기름지고、빛하고、숭모잇서 꿋꿋이 거기 살고잇고、메롯하고、알뜰한생각이 代代로 자하고 實實에 다저서 한줄기이냐、한오름이나 몰한벵이、풀한포기를、어느것이나 쥐고、몸고、말고、맘러서 精氣를 서로바꾸고 消息을합께 通하야 今古도모르고 南北도 이저버리고 다만 사랑과 드든함으로만 풀리고、서기고、도로매저서 제감정을 가야할것이 너의일이다。

저 目前主義者들을 떠러다가 저 現金主義者들을 떠러다가、어지로라도 이 山上下에 세우고서、五分間만 靜肅할 嚴格한 가르한 洗禮를 주엇스면 歷史와 鑑伐로 깨끗한 새옷을 입고가지 안켓느냐。

내가 내로라하는 榮光과 光輝 白의 鮮血의 동아싀를 이 내生命의 흘드른 永遠한 偉觀이요、내목에걸린 不朽의 光榮인줄을알때에 남은비록 하하게、보는내라도 나는 나대로 모든衆生에게 分明 깨닷고 잡자이다。

벌서 오랜 옛날에 다삶아 전기니한、그 아름다운 꿈이 그대로 다 여기 뚜렷한 現實속에 전은보채기를 쓴냐 嚴肅하고、인제는 밋부리채로말라 때어버리고서 아무동정조차 업는슬만여긴 그빗나든靈東도 靈魂이나 다여기 그로 거힐은 속에 마르렛을 인냥 하야、남의 을 담내어서 치고 남에 세우고서 에 눈물 그 알리고 떠러고 어려꼬 구지불한 에 제스스로 놀리고 떨것이다。

내가 아무것도 못가진 못이기로 내가 한군대도 못서한 이기로 그넘스록 주는이는 오히려 요 무엇도 어 고치솟이는 다만 내진 다。

오늘 도한번 천둑소리로 뛰처나를까。

「너는네거로 돌아오라는고。 나는 뒤처저 人衆의 行列을 멀리따르며 十步、二十步에 몬득몬득 우둑허니 서서 내가슴에 일어나는 情熱의 좋로 내흘을 데우고、여기도 한덩이의 흙 불을 하야 어리석은 예승의 것이 되엇스면하고 기어는 이가를 을 세기고서。

가슴에 어는흙로 제몸을 데우고서 흙되어 山마루에 서잇노니 너나야 서로 동해서 지켜바로 가옵소서。

어꽃이 잘못이어든 分明 잘못이어든 묻히어 깨어져서 그마저 가루나서 되옵소서。

—十—

協展書譜 (一) 曲屏一對 春谷 高義東氏作

第十五回맞는 協展印象記

❶ 安夕影

第十五回의 書畵協會展覽會는 亦是 徽文講堂에서 열리엿다

가난한살림에 겨우맛는 會場이지만 너무도 社會의 援助를못맛는協展은 그래도 몃사람의作品을陳列하기에는 過히狹窄치안타고나할가 出品者가 적은것도 斯界에 從事하는이들이 너무도 여기에멀리한테에 섭섭하다아니 할수업다

그러나 지금풍은 書畵協會로도 무슨形式으로든지 書部를獨立식히고 別個의 美術展覽會를 보혀주어도 일치안은 時代가 왓것만 여기에 勇斷이 업슴이 이協展의 發展을 가저오지못하는 原因이 되지안는것인가

壽命이 길다는것이 자랑이아니라 어떠케 發展식혓느냐가 話題가 될수잇다 그리고 書나 四君子를 爲하야 이協展을 못보다주든 有志는 업이 하나둘식 입히가고잇슴을 協展諸氏도 보고잇슬것이니 協展은 그協展自體의 未來를 爲하야 어떠한覺悟가 잇지안으면 안되다고 할만제 將來를 憂慮할만한 蒼白한 顔色을 보혀주고잇슴이다。

勿論 이協展은 自己自體에서 힘을 꺼려낼 時期는 지냇고 어떠한 큰後援이 잇지안으면 때成長하기 어려운 危機에 다다른것을 느낄수잇다。

여기에는 協展諸氏의 非常한 活動도잇서야하겟지만 그림에어 되서 가저오는것이나가 생각되는 問題다 筆者가 이以上 말하면 쓸데업는 干涉이기에 거기에는 그만해두고 協展의 作品을보기로하다

◇

「書」는 筆者가를 評하기에 너무나 門外漢이요 人者의눈에도 多少의 어느듯하나 이것은 筆者가 言及할데가아니요 四君子亦是 研究가 업스니 省略하기로한다

東洋畵에 잇서서나 西洋畵에 잇서서나 昨年보담 조흔作品을 볼수잇는데 이에反하야 在來의 조흔作家들의 駄作도볼수잇는것이 異味잇는對照다

그런데 東洋畵部에잇서서 未完成品이라 하나 心仙 盧壽鉉氏가 近來에 드믄力作을 보혀준것이 기뿐일이요 이번協展의 代表作의 하나라고 보아도 조흘 큰收穫임을 말하고 십다 그리고 「聖畵」에 專心하는 張勳氏가 出品한것인데 氏의 이번의 作品이 氏를아는 사람들에게 注目이 되는것도 한가지協展의 새面目의 하나다

春谷高義東氏의 새試驗인 西洋畵家로서 東洋畵로의 轉筆은 漸次往年의것과 以堂金殷鎬氏가 비록 단한개의小品을 내여노핫지만 氏의存在가 協展東洋畵部에서 두렷한것과 李鍾禹氏의 아카데미즘의 進路에 선것과 鄭玄雄氏의 迫力잇는作品들이 이번 協展의 重要한問題가 되는作品들일것이다

이번에 協展에서 諸氏의作品들이 確實히 조하진것과 大槪가 眞實된 藝人의態度를 보혀주엇슴이 무엇보다도 慶賀할일이다

于先 東洋畵部에 드려가印象을적어 가려한다

▲白潤文氏＝이분의 그림은筆者가 展覽會가 만허서 그런지 이분이 요사히 沈滯하지안엇는가한다「花鳥一對」는 初學者로서는그리어려운 作品이라할지모르나 이제풍은좀 深奧한것을 보혀주어도 늣지안흔대인데 너무해 바라진 느낌이잇다

勿論色彩의 精選이라든가 色調의 優美에서 가저오는 明朗化가 有하야 그런지 東洋畵의 고 사군만해서야 좀더 評價할 수는업슬것이다 좀大膽한筆致와 鬪ㅣ하게 되어構圖가 보고십다 氏와가튼 技巧로는 넉넉히 傑作이나올것가튼데 너무 삼가고 너무주저하는듯한것이 氏의作品의沈滯를 가저오는듯십다。

그리고 지금까지 世人이 東洋畵는 金融用으로 생각만해왓지만 이것이 藝術品이라고 重해왓드면 氏와 가튼이에게서 조흔 作品이 나왓슬것이 아니엿든가

너무 過度한말가탓스나 여기에 獨時에 잇서서 東洋畵家의 悲哀가 잇슬것이다 (계속)

一漢詩一

題白頭山

押峰 桐岡 考選

佳作之五

鳳山郡楚臥面楚郎里 松岡 崔楨穆

特鎭海東作祖宗
蓬瀛方丈總兒峰
北控滿蒙如視掌
南望吳越欲呑胸
尺天即恐磨頭觸
片石堪言定界封
今見報欄探險記
桓雄神聖如逢

醫學漫筆(二)

―奇異한病(下)―

鄭槿陽

팔킨손氏病。

몸全體가 덜덜떨려 마지안는다 四十～六十歲나된 中年乃至老年에게오다。十九世紀初期에 팔킨손氏가 報告하엿다。統計에依하면 六千名의 精神病患者中 四十名이 이患者이엿다고한다。드믄病中의 하나이다。原因으로들 만한者는 感冒 外傷 甚한精神感動 膓티브스 多發性動脈硬化症等이 잇슨後 腦中樞에 變化를이르켜 이런病을 이르킨다고 생각된다。때로는 遺傳을證明할 때도잇다。처음에는 한便짝 팔다리가 異常히 떨리게되고 차츰 다른便手足으로 옴겨간다。安靜하고잇슬때나 運動할때나마 찬가지다。얼골은 蠟人形과갓고 무엇에 놀란듯하며 또 매우미련스러워보인다。우리들이 百貨店 쇼윈도ㅣ에서보는 蠟人形보다도 表情이업다。步行 奇異한 態度를 지안흘수업다。妙한 손짓으로 丸藥을비비지는運動을하거나ㅣ金錢을 세이는形容을하는患者가 잇다。거름거리는 衝突的이요 直線的이다。記憶力도勿論退步하고 智力도 喪失되여버리며 人間으로서는 完全한廢物이되여버리고 말게된다。고칠재주도업고 肺結核其他다른病으로 마츰내죽음의 길을밟어버리게된다。

第四病 第四病이라는 名稱을 가진病이 두개잇다。하나는小兒科病이요 하나는 花柳病에屬한다。小兒의傳染病中에잇다。小兒의傳染病으로 第一位에서는者는 무엇무엇해도痲疹 다음으로猩紅熱이다。다음 風疹 傳染性紅斑 水痘等 二十四種類쯤을 헤일수 잇다고한다。이런것과 恰似한小兒의急性傳染病이 잇는데 이것과臨別하기爲해서 約三十年前에 英國 듀ㅣ크가 第四病이라고 命名하얏다。只今여기말하랴는것은 小兒의病이 안이요 大人의病이다。第四性病을 말하랴 함이다。이病은 듀란、니코라ㅣ、화ㅣ블三氏에依하야 詳細히報告되엿스니 學名으로는 鼠蹊淋巴腺腫이라고 부른다。只今까지 性病이라고 생각되여왓든것은 淋疾 黴毒 軟性下疳이엿섯는데 이病이 性病으로서 登錄하게되니 이것을 第四性病이라고도 부르게되엿다。感染機會인 性交가잇슨後 數日乃至三週間을지나 初期症狀으로서 局所에 적은水疱가 생기기도하고또는 조고만潰瘍이 생기게된다。그러나 이러한變化는 곳 나어버리고 患者가別로 疑心하지안는다。그主要한症狀은 鼠蹊部에 淋巴腺이 부어오르는것이 그것이다。이런症狀은 交接機會가잇슨後 平均二週日乃至三週日後에 突然히 前記淋巴腺이 부어오르다。이것이 漸漸甚하야지며 皮膚가 빨개지며 鷄卵大로 주먹만치 커지게된다。마츰내는、이것이 터저버리고 종기처럼 낫지를안는다。이病은、異常하게도成年된 男子에게오고 女子에게는매우 드믈다。이病이 性交로 傳染되는것이요 一種의 性病임에는 틀림업스나 그原因이 무엇인지는 아직確定되지못하얏다 얼더한 特殊한 病原體에依해서 이러나는것이라는 想像이잇슬뿐이다。

이病은 元來 熱帶(南米、印度)及南熱帶地方에 發生하는것이므로 일즉이 學者들의 注目을끄러섯다。그러나 最近十餘年內에 佛國、伊太利를 爲始로、北歐地方에도 蔓延하게되엿다。最近 朝鮮에잇서서도 이病을 드믄드믄 볼수가잇다。이곳에까지 퍼지고 잇다。무서운일이다。맛당히 젊은男女는 警戒하지안으면 아니되겟다 寒心한일이다。

「조선어표준말모음」(41)

첫재、가튼말(同義語)

(一) 소리가가깝고뜻이꼭가튼말

자루(名)柄 / 자로 / 장구(名)杖鼓 / 장고 / 자주(副)屢 / 자조 / 저로 / 자루 / 자루리(名)鶴尺 / 자로리 / 재주(名)才 / 재조 / 젓통이(名)乳房 / 젓퉁이 / 주추(名)礎 / 주초

주악(名)떡의웃기 / 조악 / 천둥(名)天動 / 천동 / 몽건(名)毒病 / 몽견 / 몽소(名)宴會 / 몽소 / 꾸주(名)?廚 / 꼬주 / 하루(名)一日 / 하로 / 호추(名)胡椒 / 호초

호두(名)胡桃 / 호도 / 아무(冠)某 / 아모 / 아무개(名)某 / 아모개 / 아무데(名)某處 / 아모데 / 아무렇거나(副)不拘如何 / 아모렇거나 / 아무렇든지(副)何如間 / 아모렇든지 / 아무렴(感)勿論 / 아모렴 / 아무리(副)如何히

아모리 / 아무쪼록(副)某條 / 아모쪼록 / 아주(副)全然 / 아조 / 아우(名)弟 / 아오 / 아욱(名)葵 / 아옥 / 앵두(名)櫻 / 앵도 / 얼굴(名)容貌 / 얼골 / 면상 / 어루만지다(動)撫摩 / 어로만지다 / 여북(副)여북쉬으랴 / 여복 / 율무(名)薏苡 / 율모 / 이루(副)盡 / 이로

입맞추다(動)接吻 / 입마추다 / 입마치다 / ●ㅗ와 ㅜ의 通用【ㅜ를 취함】 / 가끔(副)往往 / 가꿈 / 고금(名)瘧 / 고곰 / 고등어(名)鯖 / 고동어 / 고둥어 / 그만큼(副)其程度 / 그만콤 / 그마큼 / 그마콤 / 그만치 / 그만칠 / 그마치 / 그마칠 / 만큼(助)얼마만큼 / 만콤

마큼 / 마콤 / 만치 / 만칠 / 마칠 / 마치 / 맨드라미(名)鷄冠花 / 맨도라미 / 맨두라미 / 사르다(動)燒 / 사로다 / 살다 / 소금(名)鹽 / 소곰 / 싫큼하다(形)嫌 / 싫콤하다 / 이만큼(副)此程度 / 이만콤 / 이마큼 / 이마콤 / 이만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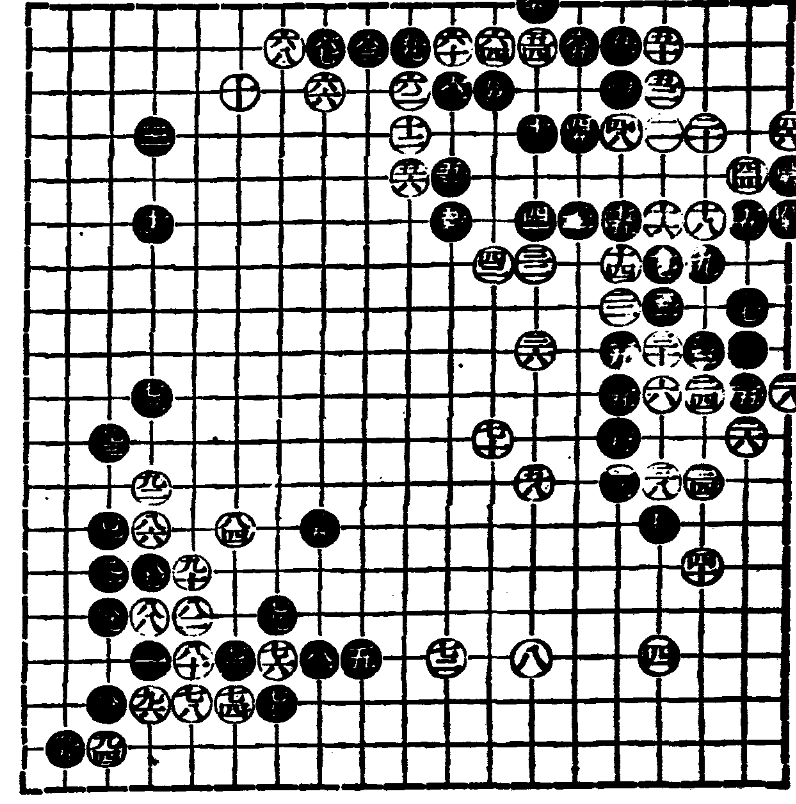
이만치 / 이마치 / 이마칠 / 저만큼(副)彼程度 / 저만콤 / 저마큼 / 저마콤 / 저만치 / 저만칠 / 저마치 / 저마칠 / 조금(副)少許 / 조곰 / ●ㅗ와 ㅜ의 通用【ㅗ를 취함】 / 가락지(名)指環 / 가락조 / 가락 / 동티(名)動土

동토 / 채찍(名)鞭 / 채쭉 / 채죽 / 치마(名)裳 / 초마 / ●ㅐ와 ㅔ의 通用【ㅐ를 취함】 / 괭이(名)鍬 / 광이 / ●ㅐ와 ㅓ의 通用【ㅐ를 취함】 / 왜(副)何故 / 웨 / ●ㅟ와 ㅜ의 通用【ㅜ를 취함】 / 비추다(動)照 / 비최다 / ●ㅚ와 ㅟ의 通用【ㅚ를 취함】 / 아뢰다(動)告白 / 아뢔다

圍碁對局譜 ―6―

本社主催

白 張 ? 文 / 黑先 崔 ? 部



●	丑의十六
○	辰의十五
●	午의十七
○	卯의十三
●	丑의十三
○	巳의十三
●	巳의十四
○	巳의十五
●	午의十五
○	辰의十四
●	午의十四
○	巳의十二
●	午의十一
○	午의十八
●	未의十八
○	巳의十七

觀戰者談

白辰의十五對應을 黑이 午의十七로 耳角을補策이 衆備하은 超等奇才로 認識되다 況次 白包圍分이 堅固重重하니 요다음 何如한 奇變이 出來될는지

讀者社交室

▲左記書籍을高價로買入코자하오니 讓渡하실분은 全南長城郡邸... 殷泉里... 에게로 一報하시기 仰望

記

一、高等法院判決錄自昭和五年十七卷 至昭和六年 十八卷二圓
二、陽明法 一冊 鵜田著
三、朝鮮法制史稿 淺見著
四、大典會通原文詳解
五、增補文獻備考洋裝八卷一圓
六、表穗備要
七、朝鮮不動産登記實解
八、朝鮮史講座第十卷、十一卷、十四 十五卷 四圓
九、臺灣人事慣習調査報告書
十、判例民事法 大正十三年以降分
十一、法律辭典 岩波版第四卷一圓

▲西氷庫町서 無斷出家하신白仲鉉兄！只今어느곳에계십니까 늙으신母親과 病든子息과 집안이不安中에잇스니 居處를京城府西氷庫町 崔文植方으로 通知하시요

▲生은普通文官試驗을志望하는者이온바 左記諸般事項을 未知하와 問議하오니 滿天下讀者諸賢은 紙上으로 解答하여주심을仰要

一、受驗資格如何 受驗課目
一、志願手續如何 期日及場所
一、受驗料有無
一、讀者諸氏께서 日本通信大學法律學會에서 發行하는 講義錄을 或讓渡하실意向이 有한분은 左記住所로通知를바람

慶北達城郡解顔面密溪 崔徽秀

▲二十三日社交欄에發表한 全南長興S生에게答합니다 貴下께서讓渡코자하시는 左記書籍을貴下의住所를 알게하여주시기를바람니다
普文興會編纂要覽
法學通論 憲法 行政法上下
民法(總論 各論 物權 債權 親族相續)의五冊
刑法(各論總論)
竹內長正 吉田喜久郎 普文受驗提要
星野武雄 普文試驗問題答案集
荻原彦三 朝鮮行政法以上

江原橫城郡橫城面邑下里 柳鳳秀

▲讀者社交室을通하여、左記書籍을(古本)購入할려고하오니 滿天下諸者先生님께 發表하여주심을伏望하옵니다 家勢가貧寒하야 學校는 더바랄수업는形便이기에 獨學을할려고하옵는데 早稻田中學講義錄을 讓渡하실先生님이게시면 迅速히價格과住所를 左記住所로通知하여주심을 伏望하옵나이다

咸南咸興面天機里三五 殷...

▲本人이南京蟲撲滅藥을 粉末로製造하야 試驗코저하는데 그原料가무엇인지 不知하야 製造하는 方法을 아시는분은 忙中이나마 左의條件을 下敎하야주시요

一、末藥撒布器(圓形으로現在市上에서販賣하는イマツ䧺取藥撒布器의如한것) 製造工場及其住所
一、千個에對한價格

市內內資町 秦... 社交室을通하야 問議코자하나

▲生은普通文官試驗을意向이有하오나 何月何日이試日이오며 試驗手續은 何場所로出願하을는지모름으로고민中이오니 讀者여러분中 아시는분은社交室을通하야알려주시면感謝히알것나이다

京義線西井里驛前 Gw bw

▲市內담당生에게答함 당신이물으신故金海岡先生의令胤의住所는市內西大門一丁目一九一ノ二金永基方이오니書藝研究會의 件을그리로 물으면仔細히指示하오리다

花里町 蝸牛堂主人

▲明倫町 惠化町 城北町內에 小學生을置한家庭에서 家庭敎師를求하시는분이잇사오면 通知해주소서 生은 二十八歲인 某專門生입니다 別로報酬를맛자고아함니다 다만다르든下宿에서 내는食費를내고라도 조용하고 信賴하고 잘하고 한食口와가티 지내기를 願합니다 小學生指導에는 잘하겟습니다

市內明倫町一丁目二七의一四

▲十月十一日附讀者社交室書籍讓渡生께뭇습니다
一、무쇠탈 一、端宗哀史 一、사랑나라 一、再生 一、無情의 讓渡價格을 左記住所로通知하여주십시요

慶北義城郡知品面新陽洞 文明鑛山分析係 朱生

▲滿天下의 中等學生諸君이여！大阪外國語學校를 志願하시는분이안게십니까？게시거든 左記住所로레터를주시기를 懇切히 바람니다

平壤府景昌里四ノ十二 金玉水

新刊紹介

▲青年 十一月號 發行所 京城府鍾路二丁目九 青年雜誌社 振替京城一〇三六番 定價十錢

▲朝鮮興信報 第七十九號(月三回)發行所 京城府旭町二丁目五一 朝鮮興信所 定價一年六圓

▲使命 第十號 發行 東京市神田區猿樂町二丁目四ノ三 在東京朝鮮基督敎青年會 振替東京四二六二八番 定價三十錢

▲次代의朝鮮 十一月號 發行所 東京市神田區駿河臺二ノ一 朝鮮協會 振替東京一五八〇二番 定價十錢

▲로ㅣ마字 十一月號 發行所 東京市麴町區丸ノ內三ノ二 帝國鐵道協會內 로ㅣ마字ひろめ會 振替東京九一一番 定價二十錢

▲기쁜소식 十一月號 發行所 京城府竹添町三丁目三五 東洋宣敎會聖潔敎會出版部 振替京城一一五五〇番 定價五錢

紳士用防寒トンビ
本ラクダ地 一枚 金二十四圓
高級ラクダ地 一枚 金二十三圓
本ロスキン地 一枚 金十九圓
高級品ニテ極上ロスキン地ニテ本絹朱子總裏付キ市價三十圓以上ノ品ナリ 何レモ鯨尺三尺四寸、三尺五寸、三尺六寸用意

カワウソ代用襟毛皮附ベロアーオーバ
襟。毛。附
色合、紺、黒、各ダンボール箱入一着値
鯨尺二尺八寸 二尺九寸 同値、片前型 十七圓六十錢
鯨尺三尺 三尺一寸 同値、兩前型 十八圓六十錢
表生地極上ベロアー、裏絹朱子、一見四五十圓の高級品

大衆防寒グランド羅紗オーバ
鯨尺二尺二寸 同値 一枚値 四圓八十錢

本ラクダ羅紗高級オーバ
色合 紺、黒、
鯨尺二尺八寸 二尺九寸 同値、片前型 十八圓
鯨尺三尺 同値、兩前型 十九圓
表本ラクダ生地 本絹朱子裏別高級仕立

極厚高級メルトンオーバ
鯨尺二尺八寸 二尺九寸 同値、片前型 七圓八十錢
鯨尺三尺 三尺一寸 同値、兩前型 八圓二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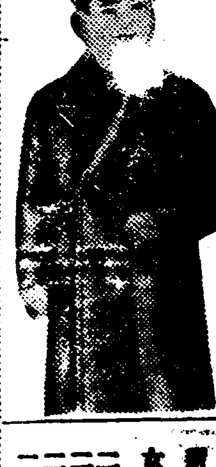
實用特製羅紗オーバ
色合 紺、黒、茶
鯨尺二尺七寸 二尺八寸 片前型 五圓五十錢
鯨尺二尺九寸 三尺 兩前型 五圓九十錢

色合 紺、黒

洋服
大産 大阪
直賣市價의半値
責任付、不合意品換返金自由
註文은「葉書로申込하시오 便宜上代金引換으로送荷함 絕對保證＝品質耐久絕對保證합니다 換品返金＝合意치안는것은換品返金自由 送料實費＝는買主負擔할것 荷送費는當店負擔합니다
名古屋市東區千種町(古井坂電停前)
合資會社 金城商會 販賣部
電話東五二一四番 振替名古屋一七七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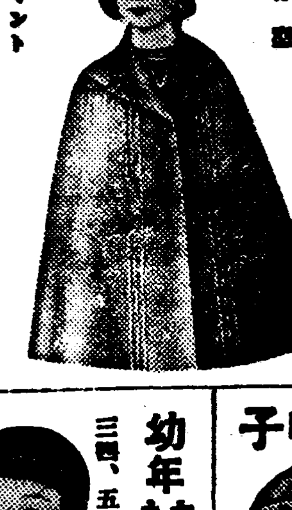
防寒頭巾附羅紗外套
金釦付 極厚地黒羅紗
各鯨尺寸法 各一着値
二尺二寸 十一二才用 四圓九十錢
二尺四寸 十三四才用 五圓五十錢
二尺六寸 十五六七才用 五圓八十錢
二尺八寸 十六七才用 六圓四十錢
三尺 十七八才用 六圓八十錢

黒羅紗通學洋服
尺二寸 一二年用 四圓二十錢
尺三寸 二三年用 四圓二十錢
尺四寸 三四年用 四圓四十錢
尺五寸 五六年用 四圓六十錢


羅紗男學生オーバ
尺六寸 幼年用 三圓六十錢
尺八寸 一二年用 三圓八十錢
二尺 三四年用 四圓十錢
二尺二寸 五六年用 四圓四十錢
二尺四寸 高等用 四圓七十錢
厚地防寒用色黒、紺、茶有リ 兩前高級仕立 各一着値

純毛水兵通學服
上下組合 一着値 各學校指定型
尺八寸 一二年用 四圓二十錢
二尺 三四年用 四圓四十錢
二尺二寸 五六年用 四圓八十錢
二尺四寸 女學生用

高級羅紗女學生オーバ
一枚値
尺八寸 一二年用 四圓三十錢
二尺 三四年用 四圓六十錢
二尺二寸 五六年用 四圓九十錢
二尺四寸 女學生用 五圓五十錢
二尺六寸 同 六圓十錢


オペラマント
流行型
新型マント 女學生大好評品 高級ラクダ 各一枚値
二尺二寸 女小學生用 三圓八十錢
二尺四寸 女小學生用 四圓四十錢
二尺六寸 女學生用 四圓八十錢
二尺八寸 同 五圓六十錢

カワウソ代用襟皮
一本 三圓八十錢
素人にて自由にオーバー取附が出來ます

防寒トンビ衿
カワウソ代用襟毛皮
一本 一圓八十錢
厚地毛皮

防寒帽子
飛行型防寒帽子 ボックス鞣皮 特上品
一個 七十錢

幼年カワウソ代用ネグネット首巻
男女有リ 三四、五六才用
一見 二、三圓の品
一本 八十五錢

連載野談 (一五〇)

布衾記

申鼎言 作
金熊超 畵

마저죽기소원(十九)

리선전관이 부원주 신경원을 정렬하고 돌아온뒤 마음이부지중 유쾌할뿐 아니라 속으로은근히 미더지는 마음까지도 범연지 아니하얏다。

그러는중 또한편으로는 유방외전에 다녀오겟다는 그창두의 소식이 궁금하얏다。

이에 리선전관은 조흔듯、께름칙한듯。그 이상한 희포를갈어안치기가 어려웟다。

그래서 조그마한 술상을 제려노코 이칠로하야금 술을 붓게하며 한잔、두잔 마서가면서 그 창두의 귀별을 간절히 기다니엇다。

이때 창문밧게서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급히 들니며

「나리마님！。밤새 문안엿줍니다！」

하고 그 창두는 매우 령롱한 목소리를 내엇다。

「옹 여서 들어와！。」

하고 리선전관은 묻시나 밧가온듯이 그창두를 방안으로불러드렷다。

그 창두가 방안으로 들어서자 리선전관은 반나마 취한얼골 비츠로서

「애。너참 나를 위하야 수고라는것보담 고생을 만히하엿다 우선 술이나한잔 먹어라。」

「황송하온 처분！。」

「어어。그럿차녀。술이란 윗직은 로소동락(老少同樂)、반상동락(班常同樂)、좀 더 크게 말하면 군신동락(君臣同樂) 장졸동락(將卒同樂)하는 윗직이여든 무슨 관계가잇나。」

하고 리선전관은 리칠을 식히여술을 따라 그 창두를 주라 명하얏다。

그 창두는 너머나 황송한듯이 그잔을 바더들고 돌아서서 마시엿다。

그리고 이칠이가 들어 주는 안주를 감히 저까락으로는 집지못하고 두손까락으로 집어서 입에 너코 우물거려 생켯다。

그런뒤 손바닥으로 입을 한번쓱。씻고

「나리마님！」

「옹。」

「일이 잘되어 갑니다！。」

「옹 말해！。」

「소인이 윤중상댁 마마님을뵈엿삽드니 마마님 말슴이 그렇게 잘나신 양반의 얼으청 돈을 밧기커녕 드리여 돈을 드려서라도 주선해 드리여야 지하서요。」

「아앙、그때 마마님께서 나를 언제、보셧다고！」

「예、조용한 자리오니、말슴이올지。그때 마마님께서 소인에게 말슴하시기를 어떠케생기신 양반인가 한번 보기나 해야 안느냐고 말슴하시드니 청직이에게 나리함자를 아르켜주시고 나리마님께서 오시거든 알리라하섯든바 십부원수대감께서 그때에 오실때 나리마님께서 수청방 뒤뜰로돌아 나오시는것을 몸을 숨기고자서히 뵈엿다 말슴하십니다。」

「그랫서？。허허。그래？」

「그래、그마마님께서 그러케질나신 양반을 다만 선전관으로만 썩으시라하시는것이 모두 조정에 간신이 만히잇는 까닭이라고 대단히 분히 생각하시면서 또 말슴하시기를그냥반이 무과를 하셧스니가그럿치 만일 문과를 하섯스면 령의정을 하실 양반이라고 말슴하시면서 나리마님을 입에 춤이업시 칭찬하시는것이 황송하온 말슴으로 꼭 밥하신것 가태요。」

「허허。에이 그게 무슨 소리야。허허。호호。」

하며 리선전관은 그 창두의말을 막는듯이 말은하나 입몰이 웃씨하여젓다。

그래서 그 창두의 말은 막고 한번 너털 우숨을 우숨뒤에 또다시 그창두를 향하야

「그려、또 다른 말슴은 업스시든？」

「달은 부탁하시는 말슴이 또 게십니다」

「오옹 무슨 말슴？」

「일은 다되엿을이니 아무 걱정을 마실것과 그세분 대감을 자주 차지시면 남의 눈에잘 으로 벼슬을 구하려 다니는 눈치가 뵈일터이오니 나리마님께서도 더 출입을 마시고 소인도 자주 나리마님께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그러나 소인이야 무슨 상관이잇습닛가？」

「오옹 그도 그럴듯이다。」

하고 리선전관은 윤방의 철학이 정절히 을홀로 생각하얏다。

이때 그창두는 다시 공손하 말노서

「더엿줄말슴이 업사오니 소인은 이 이철이놈 방에가서잠간 놀다 물너가겟슴니다。」

하고 리선전관에게 단정히 하직하얏다。

「옹。그래！。」

하며 리선전관은 그창두가 이철이와 더욱에게 한목하려는눈치를 채고 업는 이철이와가티 나가기를 허락하얏다。

이철은 술상을 치고 그창두와가티 나와다。

라디오

十三日 (金曜)

◇午後六時 俚謠齊唱과獨唱 一、가을바람 二、기러이 三、가을밤 四、어머니 五、가울(獨唱)六、뻐안가락닙 七、기러이(獨唱)八、접등 九、밤세출을녑다가 一〇、들국화 十一、우리집종나들속 中央保育音樂會 獨唱 金貞燮 指揮 崔熙南 伴奏 任永善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國語講座 京城高等小學 高橋平次郞

◇七時三〇分 國民精神作興週間(八) 報恩感謝 國民協會理事長 金明濬

◇同八時 唱劇調 一、短歌 楚漢歌 二、唱劇調 赤壁歌 金昌龍 鼓手 韓成俊

◇同八時二五分 野談 奇馬橫死 申鼎言

◇同八時五〇(東) 管絃樂 一、悲愴序曲…부라ー므스作曲 二、하이돈의主題에依한變奏曲…부라ー므作曲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 래오니드·크로잇사

第一放送

◇午後六時(高) 이야기
◇同七時三〇分 講演
◇同八時(東) 義太夫
◇同八時四〇分(東) 노래
◇同八時五〇(東) 管絃樂

十四日 (土曜)

◇午後〇時五分(東) 輕音樂 PCL·오ー케스트라

◇同一時一五分 婦人時間 『果實의營養』 梨專教授 金浩稙

◇同六時 吹奏樂과코ー넷獨奏 一、퀵스텝 二、기럭이 三、자장가…슈베르트作曲 四、저구름…金泰哲編曲 五、내故鄕 六、들장미…슈베르트作曲 七、白騎兵 八、中東學校校歌 指揮 中等學校音樂部員

◇同六時二五分 兒童新聞

◇同六時三〇分 週間時事 洪陽明

◇同七時三〇 講演『高麗時代의畵家들』 金日坤

◇同八時 伽倻琴倂唱 一、短歌…아서라世上事 二、唱劇調…沈淸歌 吳太石 鼓手 池龍九

◇同八時三〇 도라지타령 外 一、도라지타령 二、靑春歌 三、密陽아리랑 四、늴리리야 五、漢江水打鈴 興打鈴 李紅 高浚成 崔淑德 細笛 崔一海 寫字 金文華

◇午後九時 流行歌 一、설움의 벌판(申) 二、吳城홀랍차(金) 三、쌍쌍화(文) 四、放浪者의노래(申) 五、비젓는準備(金) 六、청사초롱(文) 七、陵羅島打鈴(申、金、文) 申鼎秀 金海華 文一華 OK管絃團

第一放送

◇午前一〇時三〇分 (東)講演
◇午後零時五分 (東)輕音樂
◇同二時 (東)婦人時間
◇同六時 (東)라디오·스케취
◇同六時二五分(東)講演
◇同七時三〇分(東)바이올린獨奏
◇同七時五〇分 (東)舞臺劇
◇同九時時事解說

十五日 (日曜)

◇午後〇時五〇分 라듸오·드라마『내의悲劇』全三幕中『二三幕』配役 내…金甲順 디크…張永淑 파ー겟터夫人…兪貞淑 젝늬…任英喜 아ー틔…李良淑 디슨…李仁惠 牧儀…安顯以 파ー겟터…李根郞 職業女性俱樂部 指揮 兪班卿 效果 效果班

◇同六時 連續兒童劇『의지업는애』(二) 마로ー原作 鄭英徹 脚色 新興童人會

◇同六時二五分 心田開發講演 尹涞

◇同七時三〇分 歌曲 一、乙羽調 二數大業 二、羽調頭擧 三、環樂 四、編 郭蘭玉 丁山紅 金相淳

◇同八時 피아노三重奏 三重奏曲B플랫트長調作品十一(베ー토ー벤作曲) 피아노 李興烈 바이올린 洪蘭坡 첼로 金泰潤

◇同八時卅分 杖歌 一、十杖歌 二、執杖歌 三、小春香 四、풋고초 外 洋琴 大笒 杖鼓 金永宇 全柳開東

◇同九時 映畵이야기『將軍의죽엄』 李承雨

◇同一〇時 鮮滿交換放送(滿洲國으로부터) 新京二重放送開始記念招聘支那劇 哈爾濱道外華樂舞臺로부터中繼ー哈爾濱으로부터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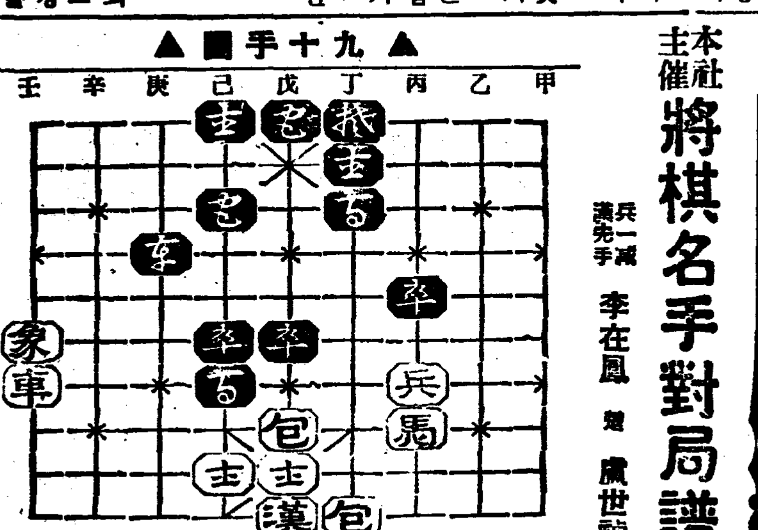
第一放送

◇午後六時 (東)이야기
◇同六時二五分 産業뉴ー스
◇同七時三〇分 재즈
◇同七時五五分 (東)落語
◇同八時五五分 (東)俗曲
◇同九時一〇分 漫才
◇同一〇時 鮮滿交換放送(滿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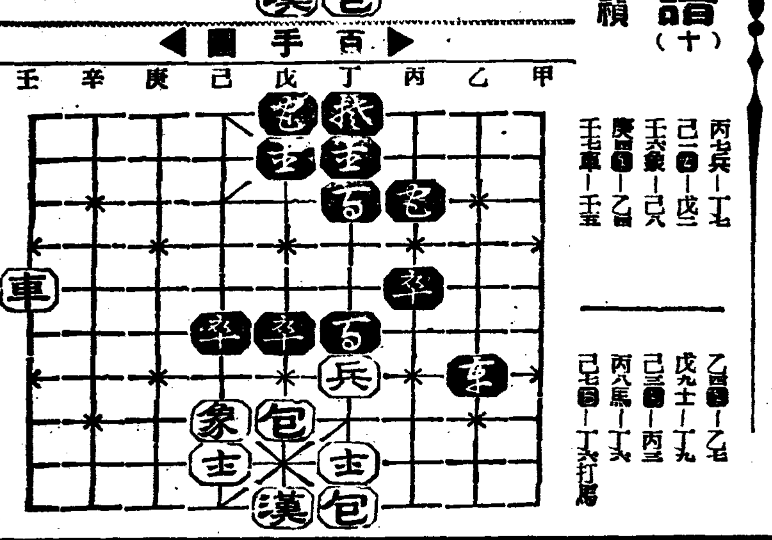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十)

兵一減 漢先手 李在鳳 對 盧世禎

▲九十手圖▲



◀百手圖▶



丙七兵ー丁七
己二包ー戊三
壬六象ー己六
庚四車ー乙四
壬七車ー壬五
乙四車ー乙七
戊九士ー丁九
己三包ー丙三
丙八馬ー丁八
己七包ー丁六打將

ウテナ花印コールドクリーム

우데나 코ー르드 크림

冷氣가 더해점을따라 空氣가 乾燥하는고로 살결은 거처러진다、살결에는 恒常過度한 水分과 脂肪分이 必要하다 콜드는 살결을 保護함에 업서서는 안될것이다、

살결을保護하는콜드는？

★참으로 純良한 콜드는脂肪分과 水分이 完全한乳化狀態로되여 均密히 混合分布되여잇는것이다

★살결에 문질너서 끈적끈적하고 먹음이낫분것은 乳化가不完全하고 淸淨力과 滲透性이업는낫분크림이다

★表面에 水分이 뚝다든지半透明한 붉은기가잇는 脂肪이 떠잇는것은 乳化不充分한것으로살결에有害하다、

★크림의 質이 구든것이든지刺戟이 强한 기름냄새가나는것은 原料가 粗惡함으로살결이거치는 原因이된다、

★外觀의肌理가 곱고 潤澤이잇는純白하고 한결가티 먹음이 조흔크림은 純良한것이라할수잇다、

우데나콜드는 完全히 乳化식힌含水性의 純脂肪크림으로 살결에 뻔질하게퍼지고 緩和作用으로 皮下에滲透하야 油性의살결에는 만흔脂肪을 溶解식혀除去하고 荒性인살결에는 맷끈한潤澤을주어 皮脂를調節하야 新陳代謝의機能을 旺盛식혀 皮膚內外의汚物、不純物과硬化物을完全히 淸掃하야 살결에充分한榮養을줌으로 皮膚는 根本的으로淸淨한 彈力잇는 生生한白色의柔軟한살결을 更生식혀준다

朝夕의洗手에、
化粧下에、
맛사ー지에、
濃化粧下에、
理想的 榮養素

定價 一圓十錢 五十五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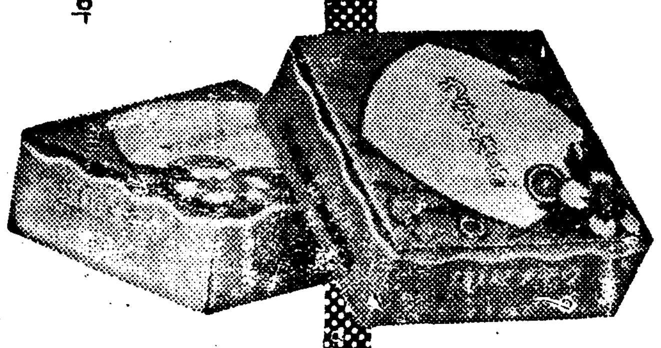
個性的인 化粧中에優美한 强化를 表現하는 우데나 연주는 明朗한近代色！ 그自然한 먹음과발음 이조흠에는 當身은반드시 滿足할것이 외다、바르지안은 겻처럼 健康하고 明朗하다

ウテナほゝ紅

우데나연지

●오레지 ●라이트 ●다ー크 ●로ー즈 ●만다링

定價・各色 三〇錢



ウテナ化粧料 ウテナ石鹼 本舖・久保政吉商店

平壤菓子商組蹶起 砂糖增稅案反對

朝鮮民度를 모르는 處事라고 當局에 陳情키로 決議

【平壤】정부에서 계획하고잇는 제세개정중 사탕소비세의 증액은 대체로 정제당(精製糖)백근에 칠원오십전하든것을 팔원오십전으로 분밀당(分蜜糖)사원오십전을 칠원칠십오전으로 증세하는것으로 조선에는 명십이년도 일년은 유예기간으로하고 십삼년도부터 일본내지와 가티 세율을 인상하기로 되엿다

그런데 사탕을 가장만히 소비하고잇는 과자상조합에서는 사탕소비세의인상을 극히중요시하게되여 평양과자상조합에서도 조선사탕소비세인상저지(引上阻止)를 결의하는동시에 상공회의소의손을 거치어 당국에 요망하기로햇다

그리유는 조선은 일본내지와 비교하여 민도(民度)가 달라서 도저히 일본내지와가튼 높은소비세를 부담할수업고 절실한그 증거로는 과거이십년동안에 소비는 겨우이배의 증가에 불과하여 이것이 오르지 사탕세금이 노팟든때문인데 이제이우에다가 사탕소비세를 노핀다는것은 조선의현실을리해못하는 행동이므로 조선의 특수사정을 충분고려하여 조선안은 영구히 유예해달라는것이다

咸安產業組合 不正事件擴大 幹部召喚取調

【咸安】함안산업조합은 창립이래 일변이로되어 부정사실이 백일하에 폭로되엿다함은 긔보한바이니와 그사건은 날이갈스록 확대되여 지난십一일에 함안경찰서에서 감부강대호(姜大浩)씨를 소환하여 엄중취조를하엿다는데 일반은 그사건의진전을 주목중이라한다

秋節의木浦街頭 스리團大橫行

【木浦】지난십일 일몰아즘부터 목포경찰서형사대는 부내해안통부근에서 대활동을시작하야 멀리 경성(京城)등지에서 침입한 주소가 일정치못한 김필봉(金八峰)(二五)리오복(李五福)(二七)과목포외 스리상습자 박동선(朴東善)(二五)전과수범의 조재화(曺在煥)(二八)등을 인치하야 엄중취조중이라는데 듣는바에 의하면 요사히 가을추수한농촌에서 일년동안 피땀을흘려가면서 지은농작물을가지고 목포에와서 매각하야 현금을가지고 시가지에 도라다니다가 그만"스리단"에게 빼앗겨바리고 쓰라린가삼을 움켜안고 공수로고향으로 도라가는사람이 비일비재이든차제에 지난칠일에도 해남군산이면송천리(海南郡山二面松川里)에 사는 민수남(閔庚南)(二五)이가 시내항제로(濟衆院)부근에서「그데볼」오십여원을 스리에게 도적마진 일이 잇섯슴으로 전고와가티엄중경계한것이라하며 일반승객은 목포출입에 특별주의를 바란다고한다

天安에法院支廳 開設運動擡頭

【天安】공주지방법원원전법원장(公州地方法院原田法院長)과조전검사정(早田檢事正)일행이 지방순시로 천안에오리회를타서 금월칠일오전십이시 천안에도착하야 법원출장소에서 환영회를 마치고 이어서 원장과검사정을 면회하고 미리예비하엿든 법원설치진정서를 제출하고 또구두로도 자세히진정하고 오후취시에는 요정삼복(料亭三福)에서 유지사십여명이 출석하여 성대한연회를 배풀엇다한다

平南道米作豫想

九七四、五四七石으로 比前年三分一厘減

【平壤】평안남도에서는 금번의 제이회 미곡조사를 지난칠일까지 일일 전도내에서 일제히조사원 일천여명과 손으로 조사한결과 구십칠만사천오백사십칠석으로 예상되는데 작년에비하여 삼분일리(三分一厘)의감수이다 그런데 제일회조사와의 조사방법에의하면 취실수만이라 사백십이다 구실칠석이어서 전년에비하여 이할일분이리(二割一分二厘)의 감수이다 그래서제일회와 제이회의 조사의결과는 실질만이 차이오 실석의차가 생기어 제이회는흉작증가를보게되엿스나 아직정확한 수자는금후의조사를 기다려 알수잇고 오직감수할것만은 서실이다

平壤都計案可決

新市街偏重에 舊市街委員痛論 十二日平壤府會에서

【平壤】평양부의 시가지 계획안 자문부회는 십팔만부민의시청이집중한 가운대서 십이일오후한시 삼십분부터 평양부청회의실에서 개최되엿섯다

마침 총독부에서온 진전(眞田)과사가 세밀한설명을 가한후다시 휴회한채로 각의원으로부터 상세한 질문을하여 오후세시삼십오분까지 이질문은 계속되다가 본회의에드러 독회를 생략하고 자문안을가결햇는대 이자문안은 부회의 다음과가튼의견을 첨부하여 총독부에 보내여 시가지계획위원회(市街地計劃委員會)의 재검토를지나 영구안이작성되여가지고 평양부와 평남경찰부에 회부되는것으로 그시긔는 명년사오월경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이번자문된 도시계획안은 시가의 정연미(整然美)와 건강미(健康美)를 주안으로 하여 시가지계획령에는 주거지대(住居地帶)상업지대(商業地帶)공업지대(工業地帶)의 세지역이 설정되엿고 다시풍치지구(風致地區)미관지구(美觀地區)방화지구(防火地區)풍긔지구(風紀地區)등의 네가지지구도결정이되엿는데 이것이실시되는때에는 팔십만평의 도시계획자문안가운대에 구시가(舊市街)의도로망은 안중에 두지안코 만드럿스므로 구시가시민은 아무런 혜택을밧지못한다는 결론에귀착되여 구시가측의원으로는 상당히 공격과 희망을진술하엿고 따라서 자문안을 조건부로 통과할하는 갈이업지안헛다 이제 주요한점을드려보면

한근조(韓根祖)의원은 이번의 자문안이 구시가의 도로망을전여방기한것은 한심하기짝이업다 맛당히 구시가에도 십오미돌(米突)의도로를 몃개만드러야할것이며 고교(高橋)전부윤당시에 구시가의 도로망문제를 질문하자 그대는이번도시계획안에는 부윤에게 권한을 미러 어느장단에 춤을추어야될지 알수업고 도로망이완전한신시가와 도로망이 전여업는 구시가까지 전연도로망을고려하지안는 불합리한안을 만드럿스니 구시가측은 곤난하지안흔가고 질문햇고 다시 제이인도교(第二人道橋)위치문제에대하여 서문통(西門通)압보다는 북부시가의 형성에비치여 신창리(新倉里)압이 조타는의견을 부티엇다

그리고 선천도시의 도로신설할때의 서면이 부담하는 률을 표준하야 조사하여 부담을시킬것이라는 의견을첨부햇다

◇答申書決議 부회석상에서 다음과가튼 답신서(答申書)를 가결햇다

平壤市街地計劃區域、同街路網、區畫整理區域等決定에 關하야 昭和十一年十月二十七日土第五〇三號로써 御諮問한데對하야 本件은 異議업스므로 御諮問대로 至急施行하도록 要望함 右答申함

給水制限未解除로

"김장씨즌"에 打擊 來十二月中旬에나解除될듯 地方發展上에惡影響

【元山】해제할줄모르는 원산부수도의 제한급수제―원산부의 수도는 급수능력과 수요량의불균형으로 금춘이래 제한급수라는 까다라운 비상시요급제도를 실시한이래 일변이갓가워오는지 금까지 의연히 제한급수를하고잇서 김장씨―즌을마지한육만원산부민은 적지안흔고통을 당하고잇는데 더욱이 음식점、목욕탕등 일변의 다량수의 사용자들은 오늘까지 그야말로 불편을 참어와다한다 수시보도하는바어니와 이문제의 해제긔는래월중순경에나 될듯하다고하며 수도의 대확장을한다해도 적어도 이삼년간은 공사시행관계로 여전히 제한급수의 괴로움을 바더야될 형편이라고한다 이리하야 원산상수도의 불비는 원산상공업발전에도 큰지장을 주고잇다고한다

穀物檢查拒絕로 彥陽穀商大恐慌

檢查員의態度에憤慨

【彥陽】다년현안이든 언양지방에도 지난삼월일일부터곡물검사소장긔주재원(穀物檢査所長期駐在員)을 두게되여 곡상들은물론 일반지방민들도 크게깁버하고 잇엇든바 검사를시작한지불과긔일인 지난구일에 돌연히 모모의 곡물은 검사정지명령이잇다고해서 검사를 거절함으로 전긔모모는 물론 일반지방민들도 크게분개하여 벌서부터 곡물검사소출장소에대한 비난을 주시하고잇는데 드른바에 의하면 언양검사장소는 언양모일본내지인이 단독으로 경영하면서 곡상들과 한마듸의 상의도 업시그저 우리장소에와서 검사를 바드라하면서 울산읍보다도 모든 조건을 불화 이곳은 검사지료(檢查地料)가 헐하여야 함에도불구하고 무선의 미이지 지료를 울산읍보다도 고배를올려 지료를 전납한전표를 검사청구서에 첨부치안하면 검사를 거절한다는 주재원의말에 곡상들은 그무리를 책한바잇섯다 이것이 아마도 경찰관의 귀에 드러가 결국울산경찰서 장모가 울산경찰서의 취조를 밧게된것이 곳그들 검사소원들의 감정을이르키게되여 곡상들중모모가 혹밀고나하지안헛나하여 그와가티 대담하게도 곡물검사를 무긔정지시키것이라는바 아프로 더욱검사소의 태도가 주목되며 저간무슨흑막이나 잇지안한가하고 지방민들은 매우궁금하게 여긴다고한다

幽靈社員取調

【蔚山】지난칠일에 부산서(釜山署)에서는 대창정길전(大倉町吉田)빌딍에다가 제국상사주식회사(帝國商事株式會社)의 간판을걸고 채권판매를하든 박수만(朴壽萬)외 수명을인치 취조한다함은 긔보한바이니와 경상남도울산군에도 금춘부터 울산읍교동(校洞)에다가 역시 제국상사회사라는 간판을붙이고 지부장 차영철(支部長車永喆)은 군내각면(郡內各面)를 순회하면서 수천원의 채권을판매하엿다 그러는동안 부산에서 검거의선풍이 이러나자 울산경찰서(蔚山警察署)에서도 처체를 시작하자 차영철은 전가족을이송하고 지난 십일일밤에 어대로종적을 감추엇다하는데 울산경찰서에서는수사하는일방 군내에넘어잇는동회사 외교원수명을 호출하여다가 방금상세한조사를 하는중이라한다

一府八郡이聯合 放水路開設運動

洛東江放水路開設期成會組織 統制잇는行動을開始

【馬山】매년닥처오는 수화(水禍)로 인하야 인축급가산의 피해가심대하고 잇슴은 위정자들로하야금 머리를압암푸게하든바 금번락동강하류연안남지 마산간(南旨、馬山間)으로 절각지로부터 백여박사(白裸博士)치수의원(治水委員)으로하야 오동동방면요지를·시찰하고갓다함은이미 보도한바와갓거니와 이제그운동을 총독부당국에 적극적으로 통제잇는 행동을 개시하기에는 락동강방수로설치긔성회(洛東江放水路設置期成會)가조직되는것도당연한 귀결이라하야 지난구일 남지 수산 밀양 삼랑진 마산(密陽三浪津馬山)방면의 유지 이십여명이밀양에 집합하여 본목적달성에대하야 긔성회설치에비공작의 협의회를 개최하고 다음과가튼 방책을결정하엿다고한다

洛東江放水路設置期成準則

第一條 本會는 洛東江放水路設置期成會라稱함

第二條 本會는 府郡을區域으로하고 其住民及土地所有者로서組織함

第三條 本會는事務所를設置함

第四條 本會는洛東江의氾濫을根本的으로 除去하기爲하야 適當한場所에 放水路를設置하야 그江岸一帶에잇는住民들이 永久히水禍를免케함으로서 地方產業經濟의 向上發達을圖謀키로目的함

第五條 本會는目的을達成키위하야 左記事項을實行함

期成會長一名 副會長一名 評議員 幹事若干名을 두기로 規程하고 其設置場所는宜寧、咸安、昌寧、昌原、密陽、梁山、金海、東萊의八郡、馬山의一府로서十一月末까지 期成會를 設置하야 이를統制하고 十二月上旬三浪津에서 聯合會를 組織키로함

平壤支局主催의 經濟講演大盛況

本社主筆 徐椿氏의獅子吼

【平壤】본사평양지국주최 시사경제대강연회는 십일일오후일곱시삼십분부터 백선행기념관에서 성대히 개최되엿섯다

평양지국장 김병연(金炳淵)씨의 개회인사가 잇슨뒤 본사주필 서춘(徐椿)씨가 등단하여 「경제의본질(經濟의本質)」이란 제하에서 두시간여의 장시간의 대강연을하여 만장청중에게 깁흔감명을주고 열시경에 산회햇다

◇寫眞은 同講演會場

旅行後染病呻吟든 公普生二名死亡

其餘十一名도重態

【利川】긔보=못처럼 수학려행을하고 도라와서 장질부사로 와병신음하든 리천공보학교륙학년생열세명중 모가면소고리(慕加面所古里)서흥원(徐興源)(一三)리천면관고리(利川面官庫里)서경원(徐景源)(一二)량군은 세망하엿스며 그나머지십여명도 경과가불량하야 생명이위독함으로 학부형들은 전전긍긍하고잇스며 리천시내에서 장티부스환자가 또한발병되엿슴으로 리천사회위생당국의대위협이되여잇다고한다

新谷農場大火

損害額은數千圓

【釋王寺】지난십이일 안변군문산면신곡리(安邊郡文山面新谷里)에잇는 신곡농장(新谷農場)에서 노혼벼낫가리에 불이이러나 때마참맹렬히 불어오는바람에 화염이충천하야 일시는대소동을 이르켯스나 석왕사(釋王寺)소방조원의활동으로 겨우 진화하엿는데 손해는 수천원에달하며 출화원인은 목하조사중이라한다

農民戶數調査

【海州】황해도농무과(農務課)에서조사한 도내농가호수를 보면

地主	八八、〇五六戶
小作人	一四一、一五四
自作	三六、二七八
自作兼小作	五五、六六五

으로 지주일호에대하야 소작인은 자작겸소작인호수는 이십사호의 비례를보이고잇다

地方人事

▲吉田彥人氏(順川郡守)新任人事次本報順川支局來訪

▲元大鎬氏(順川大盛醫院長)開業人事次同上

▲鎗原鎬氏(中和郡守)新任人事次本報中和支局來訪

▲孫洪吉氏(朝鮮總督府技手)甲山會寧三水道路檢查次來惠本報惠山支局來訪

▲李乘奕氏(高等課警補)新任人事次本報光州支局來訪

愛慾의彼岸 【149】

李光洙 作 / 金康穆 畫

공판정의 이러한 진술과 증언이 다 자세하게 신문에 낫다。그러할수록 윤주에게 향하는 사회의 동정은 더욱 노파가고 김장로에게 대한 반감은 더욱 기퍼갓다。김장로에게는 공판정의 증언이 비인도적임을 공격하는 투서가 만히 들어갓다。

이러한 모든 사정이 김장로의 마음을 갈사록 더욱 거칠게하엿다。그는 일체 교제를 끈고 사랑에 숨어서 술만 마섯다。위스키、뿌란디가튼 독한 술을 사다가 벽장에 너허너코는 밤이나 낫이나 혼자서 들이켯다。교회 직원들도 인제는 일체 발ㅅ길을 아니하엿고 오직 박선생만이 밤이면 차자와서 술ㅅ동무를 하엿다。그리고 손자들이 가도 구찬흔드시 돌아보지를 아니하엿다。

하로는 혜련의 오빠 종호가 집에 들어왓다。웬일인지 대낫에 집에 들어왓다。

종호는 혜련을 보고 허허 부러진 소리로、

『혜련이 어째 학교에 안 갓니?』

하고 혜련이 방을 들여다보앗다。빼만 남은 혜련의 모양을 보고는 종호는 한숨을 쉬엇다。

『나 학교에 안 가는줄을 오늘、처음 아섯소?』

하고 혜련은 도모지 집안이 망해가도 모르는체하는 오빠를 원망하는드시 눈을 흘겻다。

『혜련아』

하고 종호는 혜련의 방에 들어와 다리를 쭉 뻣고 안즈며、

『네가 퍽 수척햇구나』

하고 혜련을 물끄럼히 들여다본다。

『집안이 이 꼴이 되도 어쩌면 오빠는 마음 편하게 술만 자시고 돌아다니시우? 이 집안이 망해도 오빠는 모르는체 하실라우?』

『흥』

하고 종호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망하는 집은 망하는게지 어떠커니? 너는 지금이야 집이 망하는줄 알엇지만 나는 벌서부터 알앗다。벌서부터、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니깐으로 죽이 노라터란말이다。사람이란 악하든지 선하든지 간에 참되기는 해야겟는데 아버지란 행세가 회칠한 무덤이란 말이다。바리새교인이란 말이다。자식보다도 돈이 중하고 돈보다는 계집이 중한 사람이 누군줄 알어? 그것이 아버지란말야。나는 벌서부터 알앗서。어머니도 모르지는 일까지 내가 다 알앗거든。그리구 아니 망하는 장사 잇더냐。그러니깐으로 나는 이러케 술이나 먹고、그러케안 몰래 먹는것이 아니라、나 술 먹소、김종호술먹소、김종호라고 불러서 모르겟거든 김장로아들술먹소 이러고 장안대도상으로 활개치고 다니는단말이다。혜련아 내가인격자가 아니고 무엇이냐? 글세 어느선술집에든지 어느 색주가집에든지 가물어보아。명월관 천향원、어느 카페 우동ㅅ집 빼빠라ㅅ집 다 가서 물어보아、우리 오빠 김종호씨가 못난이야요? 바리새교인이야요? 인격자야요? 하고 다 물어보아。그리고 장안 건달여석들 어느 놈이나 붓들고 물어보아。다 내가 훌륭한 인격자라고 할레니―하하하하、기가 막히지? 혜련아 웃어라、웃엇! 우수운것을 왜 입을 오무리고 참니? 웃으라니까。웃어、흥。세상이란 다그런게야。장안에 양전한채 하는 놈들―그 점잔은 놈들、그 지사놈들、신사놈들、그 아니꼽게 빼는놈들 모조리 붓들어다가 내 껍질을 훌떡 벗겨 노련? 너는모른다、혜련아 너는 아직 어린애여든。하늘에서 내려온지 칠 안되어린애니깐으로 이 사바세계 사정은 잘모른단 말이다。그러치만 이오빠는 떡다알고 잇단말야。허허허。하나님이 세상 주의인물들의 사정을 아시랴면 이 고등계주임인 나를 부르신단말이다。야 혜련아。너는 나를 미친녀석으로 알지? 그래도 우리집안에서 나를 진정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이 잇다면 그것은 너 하나뿐인줄을 내가 잘 알어。그래도 내가 네 오빠아니냐、아모리 망난이、개차반이라도 말이다。―도모지자랑할만한 혈통도 되지못하지만』

하고 칩이 마른드시 입맛을쩝쩝 다시고 나서、『허』하고 길게 한숨을 쉬고、

『혜련아 나는 애초에는 아버지가 밉고 원망스러워서 난봉을 피우기 시작햇지만 인제는 아버지가 밉지도 안코 원망스럽지도 안케되엿다。특별히 불상하신것도 업고』

하고、끄르륵 트림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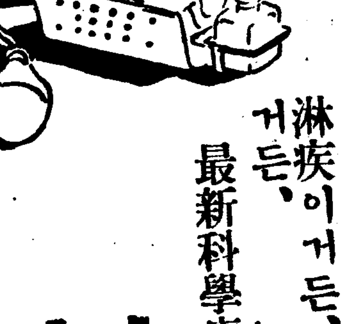
●朝鮮唯一의藥

KODERA 醫學博士推獎 萬病藥水 藥效顯著 與論證明

EBISU FUKUHOO 補材藥水
에비수疥瘡膏金五十錢
에비수補材膏金五十錢
에비수金鷄納金一圓
비수사로一루
超越淋藥
痔疾劑 五〇錢
에비수藥院 EBISU 釜山府本町五丁目
▲僞造藥에注意!

クボタ 石油輕油 發動機 農林省認定品 商工省指定優良國產品
謝恩特賣 蓄音器景品附

元賣捌 全鮮總代理店 合資會社 杉山商店京城支店 京城府南大門通五丁目二五 電話本局長 885番 4764番

新案特許 淋病治療器

淋疾이거든、藥物療法에 失敗햇거든、最新科學療法으로……
製造元 東邦科學興業株式會社 京城古市町
販賣元 平山幸運堂 京城昌成町七三 電話光化門二六一九一番 振替京城二三八六六番
(頒布代一圓九十錢(送料二十錢要先金) 朝鮮內四十五錢 其他六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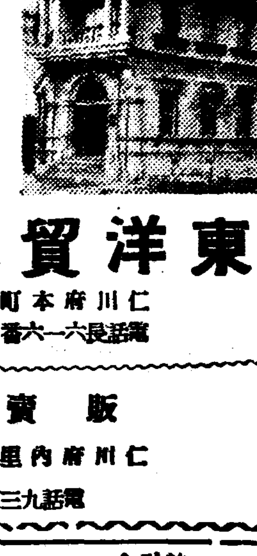
◇校舍擴大張◇ ◇開學十一月隨時(晝夜)學則要貳錢切手◇中等科第一部第二部(中等學校入學又는編入學受驗準備)
京城中等豫備專修學院 補缺生募集 京城黃金町六丁目二三番地(電本五三六〇番)

◇校舍擴大張◇ 第四七回補缺生募集 學則要二錢切手 官廳銀行商店就職紹介◇晝夜開學十一月隨時
實踐簿記專修學院 京城府黃金町六丁目二三番地(電本五三六〇番)

堅實職業 紙袋製造는家庭에서男女不問 引受確實
太陽社營業部

京城婦人病院 院長醫學博士松本泰治 婦人科 라듸움科 電本②〇四八二·三八九三番 京城北米倉町九六

歐米各國世界第一特效藥完備 韓箕道醫院 內科 光線科 醫學士 京城鐘路六丁目

東洋貿易商會

營業科目 米穀雜穀砂糖麥粉麻袋雜貨 海產物
代表者 千葉 支配人
本店 仁川府本町二丁目 電話長一六六番 一八一番
販賣部 仁川府內里二〇五 電話九三五番

第一劇場 鐘路五丁目 電九二五
十一月十二日부터三日間大公開 每日三回晝夜公演 一回正午十二時부터
松竹京都下加茂特作品 時代名篇 血刃の舞 大下宗一氏 坂東好太郎 結城一郎 光川京子 大內弘 共演
▲유니버살社特作品 戰爭活劇 西部戰線異狀업다 監督 루이스·마이르스톤氏 루우아이아스·올·임 主演
▲유니버살社作短篇喜劇 京劇 大成功

團成社
十四日封切(四日間) (每日)十時半、一時半、六時二十分(三回)
▲유니버살超特作映畫 포리스카름 빼라·루고시 主演 怪奇映畫中의逸品! 絕對異味百퍼센트戰慄篇!
▲RKO라듸오超特作映畫 뽀라이안 도래뷔 主演 두 얼 굴 凶惡無道한갱그映畫! 라듸오社가 자랑하는 메로드라마!
▲新興키네마提供 千惠藏푸로超特作映畫 村田實監督 片岡千惠藏主演 情熱の不知火
(次週十八日封切) 小公子、사랑의彈丸

朝鮮日報釜山支局 電話釜山一八九七番

經濟解說

中小商工金融

中小商工業의重要性

李□□

中小商工業에對하야서는 一般經濟가 特殊事情下에잇는것에서는 다시 말할것도 업거니와, 世界各國을 通하야 中小企業問題는 時代로서 그本質을 究明케되엇슨 數年來의 世界不況과 金融難이 그原因이라할것이다。

中小商工金融을 말하기前에 먼저 中小商工의定義를 차저내임 必要가잇는바 그概念을 定하에잇서 定則이라할것이업고 그標準이 자못 漠然하야 見解가 區區한터이니 收入高、納稅額、生産高及販賣高、使用人數、企業組織의型態、資本의額數、借入金高等에 依하다드래도 얼마를 標準삼어야할지 모르것고 特히 中小工業에對하야서는 商工業의 分類에依할지라도 반드시 妥當하다고할수업는만큼 할수업시 常識的判斷에依하야「大銀行과 去來할수업는 中小商業의 商工業」이라고 範圍를 세울수밧게 다른道理가 업슬것갓다。

×

中小商工의 定義보다 세우기 어려운터이지만 大資本에依한 大企業이 아닌것은 다시말할것도업는터로 이러한中小企業이 先進諸國에 잇서서도 重要되고 그金融問題에 애쓰고잇는것은 무슨까닭이냐하면

1、大企業에 比하야 不況時 耐久力이 弱한것=大企業은 大量生産을 하는者이라 好景氣時는 대단히 利가 만히 남고 조치마는 一朝不況에直面하면 操業短縮(事業縮少)으로「코스트」가 놉게되고 困窮狀態가 큰만큼 대단히 不利하야 견될수가 업다。

2、中小企業은 獨創的製品을 만드는것=大企業에 依한 均一製品에는 消費者가 실증이나고 個性이 나타나는것、技術이 特殊한것、獨創的인 製品을 要求하는데 이런것은 中小工業製造에 依하여야만하다

이러한 見地로 中小企業을 發展식히여야겟고 그것을 發展식히려면 金融의便을 주어야겟다는것이다。

×

朝鮮에잇서서 中小商工業者救濟를 必要로하는理由는 以上歐米의理由에만止하는것이아니오 朝鮮은產業朝鮮의旗人밑아래 躍進되어가는터이고 아프로도 大資本大企業은 國策的見地에서一層發展에 拍車를 加해갈것인데 朝鮮人의 企業이란 거의 例外업시 中小企業 小企業인만큼 中小商工業救濟策이 朝鮮人金融問題는 實로焦眉의 急務가 되어잇슴에 不拘코 朝鮮에産業政策上新機軸이되는者의產業經濟調查會에잇서서도 中小商工金融問題는 만히論議된이업섯고 大工業에對한 興業金融과農村金融改善만이 力說되고 다만社債發行과取立부터 中小商工金融에 對한主張이 잇섯슬뿐이것은 크게遺憾되는일이라것다。

×

日本內地에잇서서도 資本主義成熟期에 不拘코 中小商工業은 가장重要한 地位를占코잇서 商業에잇서는 少數의 百貨店이나 貿易商을 除하면 거의大部分이 中小規模의 商業이며 工業을보아도 商工省工場統計에依하면 工業全體中昭和九年末現在에잇서 工場數九一%、職工數三七%九、生産額二六%八(金額으로는二十五億圓)을 中小工業이占코잇는바 이統計에는職工五人未滿의工場과 家內工業은包含치안은것이 이러한數字를보이고잇서「中小商工業은日本產業上重要的地位를 占코잇슬뿐아니라 中小商工業者는國家의 中堅階級으로서 그安定을圖함이 國力伸長上重要한것」이라고 小川商相의 六九議會에서의 商工組合中央金庫法案說明과갓다。

×

이러케重要한 地位에잇는中小商工에 對하야「中小商工業者는金融의 對象이안된다」는俗言을가지게하야 過年本社主催經濟座談會席上에서도「銀行은 營利機關이오 慈善機關이아니라 損失보기쉬운 中小商工業者에게 確實한擔保가업시對人信用만가지고 貸付할수잇느냐」는말이나왓거니와 低金利時代인지금에잇서서도 依然中小商工業者는 金融界에서버서나지 못하고 그救濟와 金融流通이 根本的으로 解決되지안코잇는바 中小商工業이 組織되지못하는것은

1、同業者가 너무만흔것

2、資本主義에 犧牲되어 本質的으로 經營이不可能한 事業을 營爲하는일이잇는것 等으로 그事業自體가 지탕해갈수업는것들이 金融難에陷하는것은 別問題로 치고라도 永續性이잇고 確實한 中小商工業者로서도 自己資本이 過少한者로

1、財界變動

2、家內不幸等突發에 遭遇하면 卽時經營이困難케되어 高利貸金을 쓰게되고 負債만늘어가서 破綻이되고마는터이다。

×

中小商業이던 中小工業이던間에

1、物的擔保全無或不充分이고

2、對人信用、事業良否만에依하야 融資를 決定하는 重要商工金融은 말만가지고는 손쉽게 잘流通되지업는것이다。銀行도 大銀行業中主義에、依하야 大規模事業本位의 金融에 主力하고 大口貸出에 偏하기때문에 擔保薄弱하고 잔손걸리고 利익은 小口金融을 疎外한것이 中小商工金融難의 一原因이잇섯다。

—(계속)—

自管法發動必至

過剩米三百九十二萬七千石

朝鮮米移出八百萬石고처

日本內地米 第二回收穫豫想은 十月末現在 六千六百三十八萬六千九百八十石으로發表되어 第一回豫想보다 百四十五萬九千七百石(二分三厘)의 減少이엇는데 東京電에依한 米需給推算은 朝鮮米移出을八百萬石으로잡고 過剩米가 三百九十二萬七千石이되어 米穀自治管理法發動은 必至의形勢로보이엇다

新米穀年度 需給推算

理想持越九百萬石

【東京電話同盟】今年米作第二回收穫豫想과 十一月一日米穀現在高에依하야 本米穀年度(十一月一日以降來年十月末日까지)의需給推算을行하면如左하다 (單位千石)

◆供給	
持越高	八、〇〇六
産米豫想	六六、三八七
移入推想	
朝鮮으로부터	八、〇〇〇
臺灣으로부터	五、〇〇〇
計	八七、三九三
◆需要	
消費推想	七四、〇〇〇
輸移出	四六六
計	七四、四六六
持越高	一二、九二七
理想持越高	九、〇〇〇
過剩米	三、九二七

各港在米

比前年卅萬石減

十一月十日 全朝鮮 各主要港在米는

日本內地米	四一七石
朝鮮米	三八八、三七〇
臺灣米	三、六二七
合計	三九二、四一四

으로 先月末에比하야 七萬七千七百九十九石의增加(海州를새로包含하얏기때문에)前年 同期에比하야 三十萬七千八百四十一石의 減少이엇다

工業者大會 決議事項陳情

朝鮮工業協會에서는 過般開催한 全朝鮮工業大會에서 決議한 左記各項에對하야 田川副會頭와 濱谷常務理事가 陳情書를 携行하고 總督府와 關係當局에 對하야 十二日各其陳情하엿다

一、工業審議機關의 設置促進件
一、中小工業의 金融에對하야損失補償又는 特別制度를採用할것
一、發明獎勵機關의 設置
一、朝鮮內樞要의 工業都市에中等程度의 工業學校를 設置하는同時에 同學校의實習을促進에關한件
一、工業用電氣動力料金低減件
一、고무工業에 使用하는 綿布移入稅免除에 關한件

農產物의低落으로 騰勢꺽긴物價指數

十月中의京城都賣物價低落

朝銀調査=十月中의 京城都賣物價指數는 一九二五年를一〇〇으로 前月中에 比하야 一포인트四七의 低落을보이고 前年同期에 比하야 五포인트六六의 騰貴로서 比前月調査品目 三十種中騰貴十一品 低落八品、保合十一品이엇는바 比前月低落原因은 玄米精米等 米價暴落과 大麥、大豆、粟等 穀類 即 農産物低落에 因한것이엇다

十月各國物價

騰落區區 東京과紐育은低落 倫敦續騰巴里昂騰

日本銀行調査=十月의 內外物價指數는 左와如한데 四月以來漸騰의 步調이던 東京은 農業物價의 低落으로 因하야一五九、四로 前月보다〇、四가량 反落하얏스나 農産物以外는 肥料其他 少數를除外하고는 一般的으로續騰의 傾向이다。倫敦은 一二一、六으로 前月보다 一、五가량續騰하야 財界가 堅實한上昇步調에잇슴을 反映하엿스며 紐育은 日本同樣으로 農產物價의 軟調로 一一七、四로 〇、五가량微落하고 巴里는 金本位停止後의 物價騰貴로 因하야 前月보다 九、〇이 昂騰되엇다。

	十月	九月	十年十月
東京	一五九、四	一五九、八	一五四、三
倫敦	一二一、六	一二〇、一	一〇五、〇
紐育	一一七、四	一一七、九	一一八、一
巴里	—	[illegible]	[illegible]

經濟寸鐵

○農產物價低落으로 紐育、東京、京城三地의 十月物價指數는低落 騰勢가여러달만에 꺽기기는 하얏스나

○世界的 軍擴이土래로 物價高는 大勢라고

○銀行預金에 課稅할政府、이번은 郵貯를 利下하리라고

○國民아 公債만사거라 하는말에對하야 林財務局長 朝銀入行問題에 總督은말하되『내 긴한部下이니 내노흘수업다』는고무척 얘기는모양

郵貯利下率 三厘六毛로內定

實施期는新年度

【東京電話同盟】今回稅制改革으로 銀行預金利子에 課稅되는結果 郵貯利子가 豫金의 稅을除한 利率를 上廻하기때문에 大藏省에서는 郵貯利下를 行하기로 方針을 決定하엿는데 이引下率과 實施時期에 關해서는大體 利率은 現行年三分으로부터 三厘六毛引下인年二分六厘四毛로하고 實施時期는明年四月一日로

中央都賣市場은 中央物產代行?

建設費는百萬圓內外

京城府에서는 昨報와가티 十六日午後一時부터 調查委員會를 開하고 中央都賣市場開設에關한 件에 關하야 協議하기로되엇는데 此市場開設에對해서는 京城府로서는 斯界의權威者大野惠氏를 囑託으로하야 充分한 調査研究를하엿스므로 이미 原案作成을 마치고 今回의 調査委員會에서根本方針을 決定할터이다

×

中央都賣市場의 建設豫算과 經營方針을 確定하면 京城府의 南大門市場(中央物產系)와 東大門市場의 最近三個年平均의都賣高는一個年約五百萬圓으로 昭和十年度는約五百五十萬圓에達하고잇스므로 이에依하야보건대 市場建設費는 實上高의約一割로써 建設하는것이 基準이라고 하고잇스므로 大略百萬圓內外라고 觀察되다

×

經營方法은 府가 市場을建設하야 民間에 代行케할方針을內定하엿스므로 第一順位인 中央物產會社가 代行할것으로 보인다한다。

×

參考로 府內都賣市場에서取扱한三個年平均의 都賣高를示하면 如左하다

果實	九六六、四四三圓
蔬菜	[illegible]
鮮魚	[illegible]
鹽干魚	[illegible]
其他水產物	[illegible]
鳥獸肉	[illegible]
米·穀	[illegible]
其他雜品	[illegible]

取引停止 (十一月十日)

◆穀物貿易委託販賣業 坡州郡廣灘面倉洞里 廣倉精米所 朴鎭求◆京城府明治町二丁目一四八 京城畜業協同組合長 高田謙三◆海産物商 京城府本町三丁目五二 坂田勅夫◆京城府司諫町一一七 金元植◆建築業 京城府昌信町一九五 朴大鎭◆京城府竹添町一丁目四六 合資會社기린藥房 代表社員 尹元相

金融市場動向

八月以降十月에 亘하야 短資市場이 逼迫狀態를보이던것이 政府一般會計의 支拂遲延、株式의 的買進은 期待할수가업슬모양이니 當分間은 新動機待의 商狀으로 關門往來를 繼續할것가티보인다

東拓의金融部 再檢討論擡頭

興業金融機關新設 朝鮮內 金融制度의 統制問題에 關聯하야 最近東拓의 金融部에就하야 再檢討論이 擡頭되어잇는데 東拓의 現狀으로서는 如左한 狀勢이엇다한다

一、農業金融方面으로는 金融殖産의 積極的活動 特히 金聯의 急速한 進出에依하야 壓迫을 受코잇다
一、不動產金融으로는 殖銀에다가 朝信의活躍이잇고 兩者의數期間의 顯著한躍進에比하야東拓은伸惱의觀이잇다
一、東拓이 目下主力을 傾注코잇는것은 起業金融關係이네 目下計劃中인 起業金融機關新設時는 制限될것이 必然이다
一、其他部門進出에는 法規關係로束縛되어잇다

이原因으로서는 東拓自體의金融業務網이 粗大한 點을 擧할수잇는데 一面朝鮮內金融政策이 東拓을 閑却하고 進行한點도看却키難하야 再檢討論이잇다한다

朝銀券發行 漸次繁忙

朝銀券發行高는 前月末一億六千萬圓突乘 以來漸進的으로 中旬에入한後 十一日繰越은 一億六千四百五十二萬圓 更히 十三日繰越은 一億六千五百二十五萬圓으로 連日百萬圓前後의 膨脹을示하야 季節的金融繁忙期에直面한모양이나 昨年에比較하면約二週間遲延되는것이라한다

株式 保合圈內未脫

商況 【十三日】

前場少往來 昨後場에 百四十圓丁에 大引되東新은 今朝에는 二十錢低인 百三十九圓八十錢에寄付하고、朝取八十九圓七十錢、鐘新百七十八圓九十錢、日產八十四圓等에 各各寄付하엿는데、東新은다시 百四十圓二十錢으로買進하엿스나 아무튼 積極性이업서 頭重裡에다시 三十九圓五十錢로 反落되고 結局百三十九圓九十錢에大引되고 日產八十四圓二十錢 大新七十一圓二十錢 朝新三十五圓에 各其大引되엇다

◆東新 三九·八〇(寄) 三九·八〇 一四〇·二〇 三九·五〇 三九·九〇(引)

後場不變 後場은 東新百三十九圓九十錢 日產八十四圓四十錢 朝新三十五圓七十錢에寄付하얏는데 不變裡에立會中이엇다

積極性이稀薄

한편으로보면 東新의 底堅한맛이 꿍크리트로 다진것가튼市勢이나 上伸이 업는것을보면結局關門出入의 少幅往來에 不過하야 近日은 每日每日關門附近을 往來하고잇슬뿐이다。金塊高、銅價高、重要商品의 好調等으로 維株의 實勢는 依然頑强할뿐아니라 東新自體도 近者에는 惡材料에는오히려 鈍感하고 好材料에는 銳敏하게 느끼려는態度이나如何든 이제와서는 慢性化할데로 慢性化한買人氣로해서 前途가 아주明朗視되는 新動機를보지안코는 積極買進할것갓지안타 即 지금에慢性化한 買人氣가多少 緩和는되엇스나 年末金融이安心되고 日中交涉이 進展되고 增稅案이全的으로 發表되는등材料가 고루서기前에는 積極的買進은 期待할수가업슬모양이니 當分間은 新動機待의 商狀으로 關門往來를 繼續할것가티보인다

高率配當안켓다 秋山朝取理事談

朝鮮取引所의 今期業績은 米株兩部가잇다 稀有의 好績으로二割以上配當說이 傳하는데 秋山常務理事는 如左히 發表하얏다

新聞雜誌等에 本所의 業績을云爲하고 延하야 當期配當이二割이라或은一割八分이라고 決定되엇가든記事가 散見되나 右는會社當局이 內示한것이니오 其意圖도업는것으로 全혀 外部의臆測에不過하다 配當率은 今月末役員會를 開하고 內定하는데 一般에게 公表하고 更히株主總會에 附議하야 決定할터이다

朝鮮製鍊拂込徵收

朝鮮製鍊에서는 買鑛資金運轉資金을 만들기爲해 來年二月頃 第二回拂込을徵收할 模樣인데 十二月下旬 本期決算은 株價關係와 第一回拂込을 豫想하고잇는것等의 事情에加하야 實際의業績도 順調이므로 配當은三分乃至 五分의增配를 行할것이아닌가부고잇다 그리고 同社株는以上과가튼 情勢를 好感하야昨今急騰하야 目下二十六圓 五十錢이다

東京國債市場

【東京電話同盟】大體環境의形勢難望으로 場面은 實買閑散이나 郵貯利下等 低金利政策의 强化等으로 押目買도 多少잇서 四分利佛貨는 五錢 米貨는 西側六分半一圓十錢 五分半八十錢으로 續進하야 强調이엇다

◆甲五分利 ▲二回四分一〇〇、八五 ▲佛貨一九五、七〇

大阪國債市場

◆甲五分利一〇〇、八八 ▲二回四分一〇一、一五 ▲第三一〇〇、二〇 ▲佛貨一九五、七 ▲米貨六分半一三八、五〇 ▲滿洲公債一〇〇、一〇

期米 減收發表反撥

前場反撥 昨後場敗地二十九圓二十八錢止와 共히 廿七圓八十錢에 擧을 止한 當市場은 今朝에 入하야 日本內地米第二回豫想六千六百三十八萬六千九百八十石 第一回보다 百四十五萬九千七百石減收의 發表를 接하고 買氣 자못 旺盛한기운데 二十九圓卅四錢인 六丁高를 入하야 廿七圓四十四錢인九丁高로 地出하야 始한後 阪地八節五十一錢까지 續騰함을 伴하야 六十一錢으로 五十錢臺에서 採合하다가 結局 阪地四十錢의 反落을 據하고 四十五錢으로 四十六錢에 擧을 止하엿다

後場保勢 後場은 二十七圓五十四錢인 八丁高로 始場한後 三節四十五錢으로 結局四十六錢에止하다

二回豫想減收 市勢俄然昂騰

朝鮮米의 第二回豫想增收로一場瓦落을 告하든 各地市勢는日本內地米의 百四十五萬九千餘石의 減收로 低落의 步調는다시 訂正되어 朝鮮米의 第二豫想發表前의 高價를 恢復하고말엇스나 그原因이 何에在한가를 窺察하면 朝鮮米의 新調査方式에 依한 數字는 二千十九萬九千餘石으로 第一回보다 二十五萬餘石의 增收를보이엇스나 其實秋收場에서본 數字로는 昨年度實收高에 比하야 적어도 二割以上의 減收를免치못하리라는 悲觀說이擡頭하며 딸아서 賣惜氣分이 例年同期보다 더욱濃厚하야 産地出廻가 顯著히 不振하며 從하야 正米의 實勢는 꾸준하게도强硬을持續하고잇다 實로朝鮮米는 數字上으로보아서비록增收라할지라도 其實은 凶作임으로 此의 增收는 問題視하지안코 日本內地의 百四十五萬餘石의 減收만을 强材視하는 모양으로 當分은 强材視하는 모양으로

六感

米……오래동안 休業狀態이든 當地丸大取引店은 李甲成氏가 그經營을 引受하야 業務一新 ▲丸仁細谷仁三郎氏도 開業한지 數月에 好績이라고 ▲今回朝鮮米의增收材料는 烏有에歸하고 日本內地米二回豫想의 減收만을 强材視 ▲朝鮮及日本內地米의 增減收行動은 一巡하엿스니이로부터 注目할强材는 그무엇? 產地出廻의如何가市勢를左右?

株……오를듯하다가는 떠러지는 東新의 去就야말로 알수업는일▲底堅한것으로는 容易히 低價는 不許할것가트나 너무나 鎭重한것이 念慮인걸▲그러나 요즘 投物이 大體적은모양으로 急遽變化는 難問▲積極的買進이 잇슬때까지는 關門往來而已?▲먼저 慢性化한 賣人氣가 退却해야할일인데 그러라면 時局不安一掃가 急務……

仕手의關係로 當地더욱頑强

今回朝鮮米의 豫想增加는日本內地의 各市場에는 그다지影響을주지못하고 日本內地米第二回豫想의 三次發表를 보기前인昨後場부터 可謂山雨欲來風滿樓의格으로 市中人氣가 意外頑强하야阪地는 二十九圓二十八錢으로 當地는 二十七圓三十五錢으로자못高騰하야 擧을止하엿다 勿論第二回豫想의 百四十五萬餘石減收의餘勢도 잇섯스나 仕手의 關係도업지아니하야 昨後場부터 阪地精先側이 當地金太店을 通한買注文이잇서 連節爭 買物이 出現하엇슴으로 더욱場面을 頑强케하엿스며 딸아서 追從側買物이 또한 演出하엿고 當中期限으로보다할지라도 正米의實勢가 依然頑强하야 渡米蒐集에 非常한 支障을 늣기는만큼當限을容易히 떨어뜨릴수업다는것이 低落되지안흘것을 定하야잇스며 中限은元來有力側이 金太를 中心으로相當한 買物을 抱擁하고 잇슴으로 다로 動搖反撥의形勢를 보이고잇다 今後果如何?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illegible]

今日財界 (十三日)

◆米		(單位錢)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illegible]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illegible]
㊁三等米 一石	二八七〇	不變
京城一等白米 百키로	二二五〇	不變
正租(仁川)一等 一斤	[illegible]	[illegible]
◆市中金融		
銀行	一分貸	一分貸
金	[illegible]	[illegible]
◆株		
朝新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商品		
大阪綿米	[illegible]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illegible]
고무FAQ	[illegible]	[illegible]

各地正米

高은 一般이 豫想한 減收率보다 當然的인 數字로 買氣를 誘起하야 寄後 各地商의 支拂에「掛合的賣」도 現出하야 高値에도 保進新榮하엿스나 그後商價警戒의 利喰賣에 低落하엿다 今朝米 弘報의 津郞一千石賣는 注目되엇다 이는 東京의 買進으로 東京과 大阪의 弱關로 朝取的으로 大阪下帶를 買進한것이라고한다

▲賣方 地場軟派、約政、三木 ▲買方 東京側 中東側 高橋側 海塩

京城不變 期米高와 買氣不振하야 겨우 消費側의 買物이 散見될뿐이다 ㊁三等二八、七〇 四等二八、四〇 一等白米二二、五〇

仁川保合 軟材一遍에 人氣安定을 示하엿스나 奧地의賣物澁滯으로 期米高에 不拘하야市況은 伸悩氣味이엇다 ㊁三等二八、七〇 四等二八、四〇 一等白米二二、八〇

釜山少堅 實物이 逐日增加하나 急落後이므로 產地와의 比較가 過低라고 下逕人氣가濃厚한때에 期米高를보고 當用側의 買物이잇서 市況은 五錢高이엇다 ㊁三等二八、七五 四等二八、四五 一等白米二二、三〇

大邱一息 實物이相當히 豊富한모양이나 前日來의 急騰落의 뒤이라 低價追擊買는 하지안코 定期小强도 象하야 反落後의 一息商狀을 示하엿다 ㊁三等二八、二〇 四等二七、九〇 一等白米二二、八五

群山少康 淸算反撥에 人氣는 漸次少康에 回復되어 市勢는十錢高唱이나 實買는 積極味를缺하야 當用小口側의 買物이 散見되는 程度에不過하다 ㊁三等二八、八〇 四等二八、六〇 一等白米二二、四五

木浦反撥 軟材料出盡으로 期米의 昂騰을보고 人氣는 漸次 回復되고 日本內地注入到來로 市況은 三十錢 反撥하엿다 雄町은 季節物로 實行이 자못良好하다 ㊁三等二八、八〇 四等二八、五〇 一等白米 二二、四〇

堂島前場情報

【大阪電話】日本內地第二回收穫 [illegible]

米 期
東
趙後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米 株
仁川 東益商店
光皿
金益證券株式會社

仁川 期米
大
イダルマ
ンテキヒリト

土金 分析 買賣 石金
大陸商會
京城府茶屋町一〇番地
電話本局②三一一六番
振替京城一五一四番

朝取取引員
アジア證券
株式會社
京城府南大門通リ二ノ一 日生ビル

金融 十三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京城手形交換高◆ ◆京城金利◆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買入價◆ ◆東京市中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米 十三日

◆京城正米◆ ◆京城雜穀◆ ◆仁川正米大豆◆ [illegible]

絲布 十三日

◆京城絲布市勢◆ ◆京城絹布◆ ◆綿油沖價◆ ◆綿絲粕沖價◆ [illegible]

株式 十三日

◆朝取短期◆ ◆大阪短期◆ ◆東京現株◆ ◆東京短期取組◆ ◆朝取短期賣買高◆ ◆大阪長期◆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期米 十三日

◆朝取期米◆ ◆朝取期米賣買高◆ ◆大邱期米◆ ◆釜山期米◆ ◆大阪期米◆ ◆木浦期米◆ ◆群山期米◆ ◆東京期米◆ ◆日本各地期米◆ ◆大阪期米取組◆ ◆大阪正米標準價◆ ◆大阪市中在米高◆ ◆各地正租市勢(單位錢)◆ [illegible]

商品 十三日

◆大阪綿絲◆ ◆大阪棉花◆ ◆各地人絹◆ ◆大阪人絹現物◆ ◆大阪砂糖◆ ◆橫濱生絲◆ ◆海外砂糖◆ ◆大阪米穀◆ ◆日本麥粉市勢◆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illegible]